

談論
—

남구
문학
의
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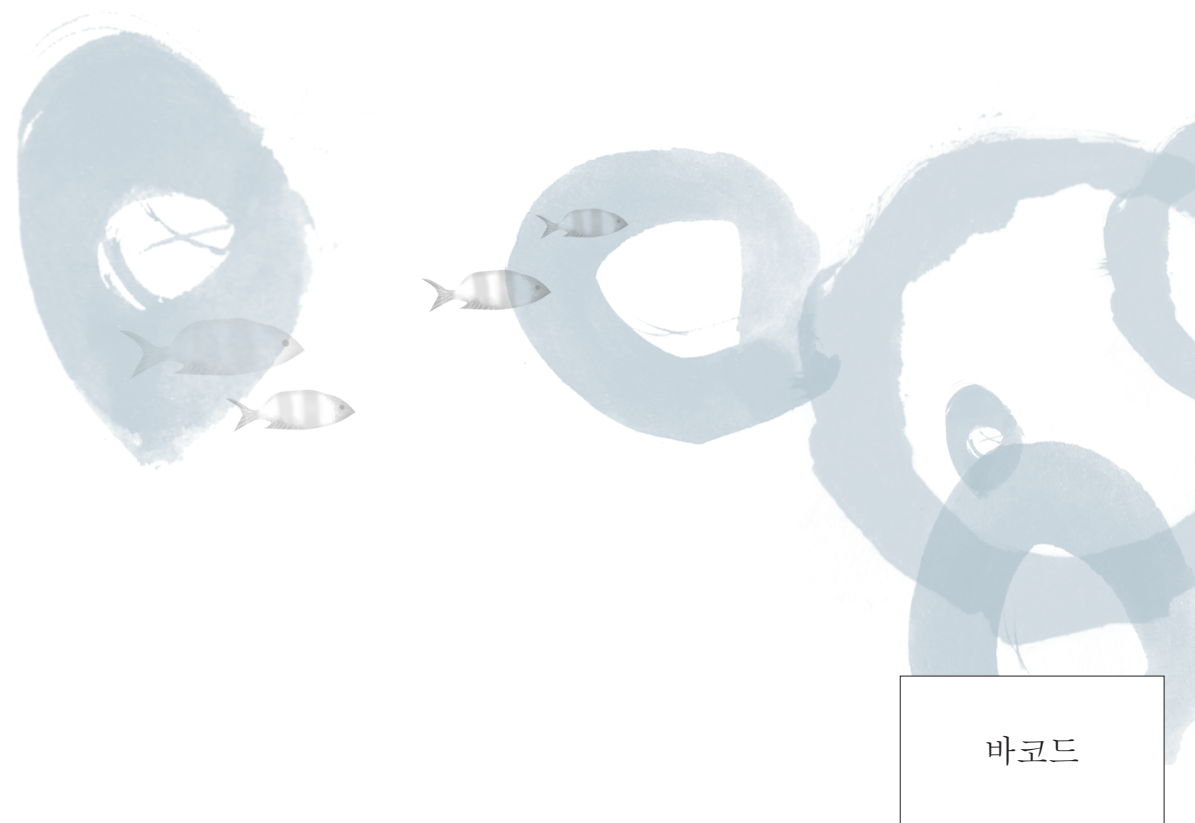
談論

남구문학의 담론

시
수필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의 정취가 넘치는 남구를 소재로 발간한 『남구문학의 담론』은 남구의 아름다운 역사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더욱 성장하는 도시로 자리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며 구민들이 남구와 관련된 시나 수필과 같은 문학을 쉽게 접하여 문화적 향유를 누리고 구민으로서 남구에 대한 시를 하나쯤은 낭독할 수 있도록 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기획의도 중에서



- 표지사진 여 명
- 표지작가 김수진 | 남구예술회사진가회 회장



부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부산남구문화원

談論

남구문학의 담론



談 論

남구문학의 담론

담론
기획

008 김 철 | 부산남구문화원장

담론
시

- 012 강 인 수 | 김 일병의 유언
014 권 명 해 | 이기대 바닷가 외 2편
017 권 미 숙 | 연어를 꿈꾸는 사람들 외 2편
020 김 달 현 | 춤추는 오륙도 외 2편
023 김 미 | 황령산의 사계
024 김 새 록 | 바다 수첩
026 김 시 우 | 8월 31일 외 2편
031 김 예 순 | 풍경이 되는 날 외 2편
035 김 옥 희 | 공원 벤치에 앉아 외 2편
038 김 임 수 | 다섯 섬, 여섯 섬
039 김 정 숙 | 침묵의 자락 외 2편
042 김 종 화 | 새가 하는 말 외 2편
050 김 한 빈 | 황령산 외 2편
054 김 혜 영 | 아모르파티 외 2편

談
論
남구문학의 담론

담론
시

- 057 남 경 숙 | 오륙도 1 외 2편
060 류 수 인 | 오륙도에서
061 민 훈 기 | 국화꽃 향연 외 2편
064 박 순 미 | 조각 공원을 걷다 외 2편
068 배 기 환 | 백운포에서 외 2편
071 성 주 섭 | 꽃무릇 외 2편
076 손 옥 자 | 황령산 진달래꽃 외 2편
079 송 순 임 | 이기대, 그 곳에 가면 외 1편
083 신 기 용 | 오륙도 등댓불 외 2편
086 안 상 균 | 이기대 달빛 외 2편
090 염 계 자 | 이기대의 봄 외 2편
093 오 종 순 | 보름달 외 2편
098 이 만 호 | 별
099 이 말 례 | 오륙도 해맞이 외 2편

담론
시

談論
남구문학의 담론

- 102 이 종 호 | 적기뱃머리 외 2편
105 이 초 우 | 이기대 외 2편
110 정 마 린 | 초가집 외 2편
117 정 명 희 | 11월 11일 11시 외 2편
120 정 선 기 | 유엔묘지 외 2편
124 정 신 자 | 도르트 수로에 서서 외 2편
127 주 순 보 | 이기대 풍경 3 외 2편
131 최 방 식 | 신선대
132 최 욱 | 이기대 해안 길 외 1편
135 최 인 숙 | 비, 에필로그 외 2편
139 최 철 훈 | 오륙도 반딧불이
140 한 정 미 | 바다 외 2편
146 홍 종 철 | 광안대교 외 2편

담론
수필

- 154 강 인 수 | 방패섬의 담치
159 권 채 영 | 여름 황령산
163 김 새 록 | 이기대서 듣는 피리소리
166 김 정 화 | 블루 시티
169 김 종 화 | 오륙귀범처럼
174 류 수 인 | 평화공원
176 엄 명 자 | 살기 좋은 우리 동네
179 윤 미 영 | 감만동 학당
183 이 만 호 | 소풍 가는 날
187 이 명 섭 | 재한 유엔기념공원에서
191 조 을 홍 | 11월의 단상
194 조 혁 훈 | 남쪽, 그 영원한 노스텔지어
198 최 방 식 | 상애원의 추억

남구문학의 담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의 일상은 많이 변화했습니다.

코로나19는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분야 패러다임과 우리 삶의 질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기본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영역들이 생겨났고 집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며 타인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대면, 비접촉’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가을 햇볕이 넘치고 낙엽과 함께 바람이 불어 밤공기는 시원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예술을 지향하는 남구문화원과 남구문인회가 함께하여 남구를 주제로 한 시 또는 수필집 『남구문학의 담론』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동해와 남해가 교차하는 곳인 부산 남구는 황령산 자락이 해안선으로 이어지는 배산임해 속에 부산의 상징이자 시 지정문화재인 오륙도와 천혜의 해안절경으로 유명한 이기대공원, 신선대 유원지, UN기념공원 등이 소재하고 전통과 현대 도시의 모습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의 정취가 넘치는 남구를 소재로 발간한 『남구문학의 담론』은 남구의 아름다운 역사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더욱 성장하는 도시로 자리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며 구민들이 남구와 관련된 시나 수필과 같은 문학을 쉽게 접하여 문화적 향유를 누리고 구민으로서 남구에 대한 시를 하나쯤은 낭독할 수 있도록 하여 애乡심을 고취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문화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남구문인회 최철훈 회장님과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구의 구민들이 문화적 역량을 쌓고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남구문화원장 김 철

담론
시

강인수 / 권명해 / 권미숙
 김달현 / 김 미 / 김새록
 김시우 / 김예순 / 김옥희
 김임수 / 김정숙 / 김종화
 김한빈 / 김혜영 / 남경숙
 류수인 / 민훈기 / 박순미
 배기환 / 성주섭 / 손옥자
 송순임 / 신기용 / 안상균
 염계자 / 오종순 / 이만호
 이말레 / 이종호 / 이초우
 정마린 / 정명희 / 정선기
 정신자 / 주순보 / 최방식
 최 옥 / 최인숙 / 최철훈
 / 한정미 / 홍종철

김 일병의 유언

- 유엔묘지에서 -

강 인 수

오월이면

유엔묘지에 핏빛으로 피는 장미꽃들

유엔묘지에는

낙동강 창녕 지구에서 전사한

한국군 병사의 묘비 열셋이 있다

그 중에는 김치산 일병의 무덤도 있다

그 옆과 아래에는 유엔 참전 용사 수백 명이 누워 있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다 되어 가건만

아무도 모셔갈 사람 없어 백골로

저 하늘에 나는 비둘기 바라보며

저 하늘에 떠가는 구름 바라보며 누워 있다

나 여기 묘비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니

들려오는 용사의 말씀

봄이면 조출한 풀꽃으로

여름이면 한줄기 소나기 되어

전야를 달리던 그날을, 숨져가던 그 순간을.

나는 창녕 낙동강 박진나루터에서 조국 위해 달리다가

숨졌나니

지나는 객이여, 한 줌 흙이 된 내 말 들어 주오

한반도의 평화는?

내 조국에 영원한 평화의 봄은 언제 오는지?

Ⅰ 강인수 Ⅰ

- 《월간문학》소설 〈밀물〉로 문단 데뷔(1979) • 부산문인협회장 역임(2004~2007)
- 현) 부경대 명예교수 • 수상 부산시 문화상(2000) 한국해양문학상 대상(2008)
- 소설집 7권, 장편 9권, 평론 2권 등 발표

이기대 바닷가 외 2편

권명해

해면 위 눈부신 굴절과 빛이 반짝인다
우여곡절을 겪은 가슴앓이 시간들의
명암들이 있다

그것들을 향한 마음
그리움이거나 추억이거나
그리운 물결의 너울이라 하여도
그곳으로 가면 바다가 되어 출렁거린다.

이기대 바닷가는 나의 무대다
푸른 날이 날마다 떠오르고
때로는 해일의 파편에 찢린
발자국이 모래를 붉게 물들여도
나는 매번 가야 한다

혼자 하는 연극을 보기 위해
무대 앞을 떠나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의 관중을 위해
가면을 벗는 몸짓을 해야 한다

굴섬

- 오륙도를 바라보며 -

다섯 섬 중 가장 크고 높아
바다의 공중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이 화근이 되어
사계절 내내 설산으로 살지만

가마우지가 그 위에 둥지를 지어
까만 옷깃을 저으면
흑백의 대비를 찬란하게 하는
햇살 춤이 한낮에 있다

바다 안을 헤엄치며
사람의 양식이 될 수 없는 물고기만 먹어
배설의 냄새가 지독한
가마우지와 동거는

사계절 내내 따뜻하다
왜, 따로 있지 아니하고
용기종기 울타리 없이 사는
네 개의 작은 섬 이웃이 있어

등대지기

밤바다를 밝히는 동명기가 회전한다

부엉이 눈알 같은 렌즈가 등대 꼭대기에서
밤을 찍고 있다
귀향하는 늙은 어부의 뱃길을
환영하는 등대지기의 불빛 찬사

항구로 먼저 출발한 물결이 출렁인다
용호동의 고적한 밤
불빛은 간간이 찍혀 있고
줄다 말다 하는 그림자를 일렁이며 깨우는

밤바다의 등대지기는
아까보다 더 크게
기다림의 뱃고동을 울린다

| 권명해 |

• 《문예시대》시 등단(2009) • 부산문인협회 이사, (사)부산시인협회 이사, 영호남문인협회부회장, 편집위원, 대담기자, 부산남구문인협회, 은가람문학회, 한국현대문학작가연대, 한국문인협회, 한국창작가곡협회 회원 • 수상 시의회 표창장, 영호남문학상, 시의회의장상 등 • 시집 『공각지』

언어를 꿈꾸는 사람들 외 2편

권미숙

저녁놀 속으로 낙엽 지듯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자연요양원에 주인 찾는 분실물처럼
햇살 드는 의자에 모여 앉아
초점 잃은 눈빛으로 이방인을 바라본다

양지 바른 창가로 나간 치매 노인
기댈 곳 없는 창백한 얼굴로
초겨울 창문 너머
희미해진 동네를 하릴없이 배회한다
저마다 수위 넘치는
굴곡 깊은 사연 잊으려
기억이 정전 되었을까
언젠가는 햇살의 무게 견디지 못해
빈집처럼 허물어져
귀향을 꿈꾸는 노인들

해질녘 골목길 끝에 서 있는
가로등 불빛 따라
청춘의 뒤통에 걸린 자화상과
토닥대고 있다.

열꽃이 피었다

성모병원 오가는 길
녹슬어 가는 뼈들이 삐걱거린다
내시경으로 들여다 본 그 안에
스무 살 처녀 얼굴에
냉가슴 앓은 열꽃 피었다
알약을 털어 넣으며
속을 달랜다

그녀, 한때 붉은 꽃이었다
양귀비 흔들림과
장미 가시 지닌 꽃
꽃망울 터드리며 앓던 적 있다
살을 찢어 입을 내미는
나무 입술이 새파랗다
꽃 진 자리
청정한 귀와 작은 혀로
내게 침묵을 건네고 있다

아픔도 꽃이라고
사람에게만 피는
눈물 머금은 꽃잎 거라고

장자산* 낙조

늪은 태양의 헛기침
건조한 역사의 서걱거림
바람은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바다에서도 산 위에서도
시간은 알몸으로 흐르고
빛들은 일제히
침몰할 곳을 찾고 있다
돌아선 뒷모습조차 아름다운 건
네 몸 속에 아직도
사랑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선홍색 핏빛 불타는 저녁에는
지나가 버린 것들이 더
아름답게 빛난다

* 부산 남구 용호동 이기대를 둘러싸듯 솟은 산

┃ 권미숙 ┃

• 《문예시대》시 등단(2009), 시인, 시낭송가 • 한국문인협회 회원, 부산문인협회, 사)부산시인협회 이사, 부산영호남문인협회 부회장, 부산남구문인협회 감사, 부산불교문인협회, 부산여류시인협회 회원
• 수상 영호남문학상 작품상(2016년), 오륙도문학상 본상(2019) • 시집 『우물 속에서 세상 보기』

춤추는 오륙도 외 2편

김 달 현

새파란 수평선 위에
점과 선이 서로 만나
부지런히 그리더니
모양을 나타낸다

밀물이면 다섯 개 섬
썰물이면 여섯 개 섬
볼 때마다 헛갈려
그래서 오륙도인가

망망대해 거센 파도
홀로 감내하면서
민족 수호신으로
오륙도는 오늘도
춤추고 있다

관해정 觀海亭

이기대 장자산 중턱
기氣 서린 명당에
관해정이 앉았다

이곳에 여장 풀고
넓게 펼쳐지는 푸른 바다에
마음 내려놓고 가슴 펴고
심호흡하고 나면
심신이 힐링이다

오고 가는 사람들아
관해정 觀海亭에 올라
광안대교 차량 장사행 長蛇行
사방 마천루 빌딩 숲을 보라
민족의 숨결이 아닌가

묵묵히 살다 보면
부글거리는 세상 뒤엔
더 살기 좋은 세상 오리라

선풍정 仙風亭

바람 소리 새소리
 몇지 않는
 황령산 바람고개
 땀 흘리며 넘는
 산사람山人들이여!
 인간사 너무 힘들다
 원망만 하지 말자

갈미봉 선풍정에 올라
 발아래 펼쳐지는 아름답고
 약동躍動하는 세상 보고
 야호-파이팅 외치면서
 세상 먼지 훌훌 털고 나면
 심신心身이 맑아지고
 새 힘 얻게 되나니
 신선당이 따로 있나
 여기가 신선당이지!

ㅣ 靑溪 김달현 ㅣ

- 경북 의성 출생 • 경북대학교 졸업 • 중·고교 교감, 교장 역임 • 《문학21》시 등단(2001)
- 부산문인협회 이사, 남구문인협회 고문, 한국문인협회 회원 • 수상 오륙도문학상 대상(2016)
- 시집 『바람에 구름에』 『인생은 뜬구름 같더라』 『인생은 들풀과 같더라』

황령산의 사계

김 미

새소리로
 꽃바람으로
 아침 햇살로

때로는 작은 숨소리로
 가끔은 엄마의 입김으로
 느닷없이 눈물로도

온다, 늘 살아서

ㅣ 김 미 ㅣ

- 전남대 유아교육학과 졸 • 한국실용음악교육협회 이사, 보컬트레이너 1급 지도자
- 가수 활동 • 시낭송가 자격증 보유 • 문화공간 달빛콘서트 대표이사 • 영도문화원 강사
- 불후의 명곡 아카데미 노래지도강사 • 남구문화원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지도
- 시외음악이 있는 문화공간 〈아트팩토리 공간〉 대표 • 시노래 음반 〈공감〉 발표
- 수상 오륙도문학 신인상(시)

바다 수첩

김새록

알몸으로 눕고 싶은 바다
고갱의 그림을 눈에 담는다
비키니를 입고 비키니는 벗어 던지고
원피스 차림의 수영복을 입는다

쉽 없이 꿈틀대는 파도에 등이 휜다

고향의 논두렁 냄새를 닮은 파도
아늑한 놀빛을 머리에 올린
어머니 목소리가 파도를 타고 온다
옛집을 찾아 집안 가득
웃음꽃 피던 명절 아침, 저녁
다 떠나버린 마루에 남은 적막 같은
파도, 그 몸속으로 나를 담근다

이기대 너럭바위 기슭을 따라
바람이 불고 꽃잎이 하늘거린다
꽃잎에 눈을 맞추는 파도

논두렁 냄새에 젖은 몸이 기울어진다
밀물 구비마다 떠오른다

ㅣ 김새록 ㅣ

• 《수필과 비평》 수필(2004), 《계간문예》 시(2017) 등단, 《부산가톨릭문학》 편집주간,
《문학도시》 편집위원, 부산수필문협 부회장 • 수상 부산가톨릭문학상, 부산문학상 등
• 수필집 현대수필가 100인 선집 『지구본을 굴리다』 외 2권, 시집 『빛, SNS를 전승하다』

8월 31일 외 2편

김 시 우

하얀 자갈밭에 스며든
맑디맑은 바닷물에 발을 담그면
슬며시 따라와 물속에 잠기는 오륙도는
다섯도 여섯도 아닌 하나였다

녹색이 짙어가는 나뭇잎 사이로
하나, 둘 헤아려 보는 오륙도는
다섯인지 여섯인지 동심을 더하면
일곱인지 헛갈려 누워버린 일신정*日新亭 난간

오륙도를 스쳐온 골바람은
앉아 보면 다섯, 서서 보면 여섯이란단,
그곳
부산항의 길목
부산을 대표하는 오륙도로 영원하면
다섯도 좋고 여섯도 좋은 것을

슬며시 밀려오는 검푸른
바닷물 빛깔에 삭은 가슴 일으키면
길손의 머리 위로 하루해가 떨어지고

8월이 떨어지면
피서지 찾는 여름 발걸음도 멀어질
8월 31일

* 일신정은 신선대에 있는 정자

바람고개

동해를 거쳐 온 바람
남해서 부는 바람이 뒤엎겨 넘어가는
아우성에 방풍림 가지마다 상처를 낸
전설의 바람고개

시집간 딸이
시집보낸 어미가 보고픔이 사무쳐
서로의 반쯤, 큰 고개에서 혈육의 정을
반쯤 나누고 돌아선다는 반보기 고개

한번쯤 들어봤을 사람
땀은 땀을 식히고 땀은 정자에 올라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내린
어미와 누이를 생각하며, 오래 전 일도 아닌데
잊혀가는 무심한 세월에 모르게
저 먼 고층 건물을 동공에 담았을 게다

피골이 상접한 전설 속의 여인들
늑골처럼 비와 바람에 찢겨
양상하게 드러난 편백나무 영킨 뿌리 위로

쏟아지는 향내가 바람에 실려 고개를 넘는
도심 중앙에 거칠게 솟은 산에서
나는 가슴을 열고 바람에 젖어 있다

사자 바위

봄꽃이 지고 난 신록의 오월
 엽향(葉香)에 이끌려 오른 황령산 갈미봉
 산도화(山桃花)가 남긴 이름 개복상 너머
 조금 전, 동인과 표지석을 어깨 짊고
 푸름을 배경 삼아 순간을 저장하고
 수평선에 뿌옇게 떠오른 대마도
 얘기를 나눈 내가 머물렀던 저곳
 바다 건너 원숭이 사냥에 골몰한
 모양새로 갈기 세운 사자의 머리였구나,
 큰 바위 얼굴 같이 조각하지 않은 자연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 능선과 어울려져
 전설이 되고 사자가 되었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은 어떤 모양으로 펼쳐야
 어울리는 멋스러움이 될까
 겁도 없이
 사자 머리 밟고 사위를 둘러봐도
 거칠게 없던 오늘은 푸르디푸른
 초록에 물들고 싶은 오월의 한낮

ㅣ 김시우 ㅣ

• 《오륙도문학》 신인상(2015) • 《문장21》 시 등단(2017) • 《오륙도신문》 신춘문예 (2020) 당선
 • 부산문인협회, 부산남구문인협회 회원, 새글터 동인

풍경이 되는 날 외 2편

김 예 순

불어오는 봄바람에
 화들짝 깬 잠
 샛노란 개나리
 활짝 꽃 피우고

지금,
 꽃물 든 이 길은
 못골 새 아파트 단지
 레전드 포레 어린이집 가는 길목

엄마가 아이 안고, 아빠는 가방 메고
 팔에 안긴 아이 볼에 입맞춤 하려
 구부러지는 아빠의 허리

한 폭의 풍경화가 그려지는 곳

봄이 피는 대연6동 아파트 동산
 나도 풍경이 되는 날

내리 사랑 너무 예뻐 한 마디
 “그림, 너무 예뻐요”

지하철 소묘

소슬 바람 맞으며
만추의 잦은 외출
나르듯이 오르내리던
계단이 부담스러워
찾기만 하는
못골역 4번 출구의
엘리베이터는 내 친구

언제나 친하게 지낸다

나이가 드니
세상살이 만만치 않아
작은 마찰에도 피멍이 들고
얇은 이불을 털다가도
손목이 삐걱
칠 십 평생에야 보이는
신체의 변화
마음의 동요가 인다

보이지 않는
가슴에 상처는
미로 속 어떤 모습일까

풍경되어
다가오는 세월의 흔적

두 여인

초록빛 바람 부는
부경대 교정
묵혀 둔 책가방
들고 나온 두 사람

곱게 한 화장
눈가에 머금은 물방울
스치는 그리움
눈물일까 안약일까

예쁜 꽃 찍으며
잠시 나눈 꽃 얘기
두 사람 폰 속 갤러리
너무나 닮았다

우린,
서로가 닮은 나이

| 김예순 |

• 시와 수필 등단 • 부산문인협회 회원, 신서정문학회 회원 • 영호남문학회 부회장
• 부산수필문학회 감사 • 남구문인협회 회원

공원 벤치에 앉아 외 2편

김 옥 희

낙엽이 소복이 쌓인 벤치에서
예쁜 참새들 모여 앉아
재잘대던 그때가 그리워진다

훗날에 무엇이 될까 걱정 없던 시절
공원 벤치 위에서 꿈꾸던 소녀는
이제 외로이 공원을 찾아와 옛 생각에 젖는다

즐겁게 노래하던 친구는 어디 가고
허물어지는 빈 벤치가 슬프게 나를 보네

힘없이 앉아 보는 내 마음
홀로 고즈넉한 가을을 맞으며
추억 속으로 낙엽 한 잎 떨어뜨려 본다

국화꽃

장엄한 태양의 빛살이 흔들리는 시간 속에
번민으로 피워낸 꽃

바람에 흔들리고
술렁이는 관람객의 환호 속에 꽃들의 잔치

단아한 자태에 매혹되어 나비가 날고
향기에 취해 멍한 가슴
홀로 피기가 너무 안타깝다

깊어 가는 가을 따라 추억이 여물고
풍요로움을 머금은 그리운 얼굴들이
해맑은 웃음으로 피어나고 있다

물레방아

비 온 다음날
살며시 다가오는 봄의 기운
병실에 누워 있는 남편의 몸에 스며든다

건강을 되찾는 그 날이 되면
미세 먼지도 없이 청명한 날을 골라
수목원으로
해안으로 함께 걷고 싶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수목원의 물레방아
실 새 없이 도는 것이
돌고 도는 인생의 발자국 같다

차츰차츰 나아지는 건강에 따라
희망이 솟구쳐 오르는 분수 같아
환희에 찬 기도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ㅣ 김옥희 ㅣ

• 《부산시단》 등단(2015) • 부산문인협회, 부산시인협회, 부산가톨릭문인협회 회원,
남구문인협회 이사 • 시집 『자전거에 꿈을 싣고』 『스치는 바람이어도』

다섯 섬, 여섯 섬

김 임 수

오솔길 돌고 돌아 동생말 구비 도니,
다섯 섬 여섯 섬이 앞 다뿔 드러나네
벧머리 바람 맞으며 저 큰 바다 품으리.

소나무 밤나무들 뒤섞여 흔들리고
바다 위 기리기 떼 섬 없이 오가는데
어딘가 이기二妓의 노래 파도보다 더 크네.

오륙도 등댓불이 대양을 밝히듯이
온 세상 끌어안고 큰 세상 맞으려니
마음에 간직한 고향 어느 세월 돌리랴.

ㅣ 김임수 ㅣ

• 울산 출생 • 《오륙도문학》 신인상(2010) • 양정고교 교감 퇴임 • 국가유공자 • 현) 연양 귀촌 생활

침묵의 자락 외 2편

- 유엔묘지 -

김 정 숙(예향)

황령산 가을 수채화는
전쟁의 얼룩인 양
공원 호수 속에 잠겨 있고
잠들지 못하는 명령들의 비애는
탑돌이 되어 바람으로 머무네

죽은 용사는
만 가지 설움을 엮어
남의 땅 호국 명령의 노예로
한평생을 보내왔건만

소통되지 않는 남북의 강줄기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산야의 통일

오

침묵의 수채화에 갇혀 있는
용사의 짙은 그리움이여 사랑이여
하얗게 얼어붙은
전쟁 비극의 만년설이여

광안리 불꽃 축제

칠혹 바다 위로 솟구치는
파노라마 불꽃은
깊은 심연에 갇혀 있던
천년 고뇌의 염원

꼬리를 단 염원들이
폭죽으로 터지는
광안리 온 천지는
찬란한 감동으로 일렁이는데

끝내 삭히지 못한 오열은
건물의 벽살을 잡고 흔들고
안으로 안으로만 응어리진
한 맺힌 설움들은
사람들 가슴을 치며
만 가지 섬광으로
통곡하고 있네

향수

홍곡산 카나리아가
개울가에서 목청 다듬고
뒷산 흐드러진
아카시아 꽃들은
산 구름 속에서 하늘거린다
산 끝자락 발 담근
부산항 7부두엔
새벽을 깨우는
뱃고동 소리 아련하고
이른 아침
은빛 두레박 침병이는 소리
흔들리는 풍경처럼
정답다
물소리 새소리
코끝을 스치는 풀꽃 향기들
하얗게 피어오르는
유년의 그리움이여라

Ⅰ 김정숙(藝香) Ⅰ

• 부산출신 • 《문예사조》 시부문 등단(2009) • 부산문인협회 이사, 부산시인협회, 부산여류시인협회, 부산남구문인협회 회원, 시사위문화예술회 초대회장 • 부산아시아공동체학교음악주임교사, 예향음악학원 원장 • 부산음악학원연합회회장직임(2013~2018), 학원총연합회부산지회 예술부회장직임
• 수상 부산문학상 우수상(2014), 백련낭송문학상 대상(2017), 시사위문화예술인상 대상(2020)
• 대표 시집 『시(詩)가 흐르는 강(江)』 (2013)』

새가 하는 말 외 2편

김 종 화(초애원)

하늘재 가는 누루목 제비들이 그러데
지 지배 지지배 예쁜 지지배

느티울 꿈터 피꼬리가 그러데
언니 왔어요? 언니 언니 가나요?

바람재 십터 빠꾸기는
법국法國 하고 울고

휘이익 호이호 휘파람새
휘파람 불며 살라 하고

편백림 길목의 검은등빠꾸긴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러데

구웁꼭꼭 못골의 산비둘기
꼭꼭 참고 살라 하고

타타 타타타탁 갈미봉 까막딱다구린
쪼고 또 쪼면 안 되는 게 없지요
절차탁마를 가르치데

호르르 삐빅 삐이익 뿔종다리
촉촉하게 촉촉촉 부흥 우우웅
가만히 마음귀 열고 들으면
새들의 말소리가 들리데

쪼로로롱 쪼롱쪼롱 방울새
방울방울 울리며 그대 벗이여
꿈꾸며 일하고 애쓰는 삶 계속하라고

못골 연가

못골

남촌면 대연리는 조선시대 동래부 땅 용주면 대일리는 왜정 때 바뀐
이름 해방 후 되찾은 이름 대연동이 여길세

경계

동으로 포등浦嶼이니 갯등 지금 부경대요 서쪽에 천제등天祭嶼은 부산
공고 뒷산이라 호곡등戶谷嶼 우리말 이름 지갯골이 정답구나

남으로 전선등戰船嶼은 남부운전시험장이요 평지등平地嶼은 유엔공원
비사등飛蛇嶼은 박물관 터 반개등半開嶼 논 가운데 있어 농부들의 쉼터라

북에는 바람막이 황령산이 굽어보고 앞으로 바다 있어 배산 임수 분명
하다 등嶼 사이 냇물이 흘러 낙토가 예 아닌가

대연고개

그 옛날 지갯골고개 아주 높아 힘든 고개 일제강점기 못골마을 시장통
이 큰길이었대 돌우고 고개를 파내느라 징용자들 고생 고개

이인 일조 흙을 파고 레일 깔아 밀어 올려 고생고생 하였으나 완공하
지 못하다가 '육오년에 시에서 낮춰 시원스레 뚫렸네

사분포四盆浦(사분개)

쇳자리 분포마을 염전이 네 군데라 그 옛날 하천을 낀 조그만 포구였

대 황령산 발원한 남천 '봉깨마을' 흘러갔대

용소龍沼

늪지대였대 부경대서 대천중까지 칠천여 평 경성대 - 부경대 - 군수기
지 사령부까지 그 넓은 이, 삼십만 평 '용소'라고 불렀대

낙농마을(황령산터널)

황령산 줄기 따라 관모봉 산기슭에 근래에 십여 호가 이주하여 생긴
마을 지금은 굴이 뚫리고 아파트촌 들어섰네

석포마을

하천에 자갈 많아 돌개라 불린 동네 천제등 전선등 사이 한적한 포구
였대 동란 땀 비사등까지 바닷물이 들락날락

당곡마을

당집 있어 불린 이름 땅골 이름 촌스럽다 집값 떨어지고 미관도 해친
다고 아파트 몇 동 들어선 뒤 그 이름만 남았네

못골마을

예부터 있어온 못 백여 호가 살았었대 해방 당시 죽산 박씨 여은 송씨

김해 김씨 그리고 밀양 박씨까지 한데 얹어 살았대

아랫못 신라 때 쌓아 만든 못이었대 대연초등 부근 길이 120m, 높이 20m '생천연' 동래부지 기록 아래쪽 논 물대던 못

작은 못 중앙고와 대연여중 고동골에 아이들은 수영하고 아낙네들 빨래도 해 칠공년 수리조합서 매립해 없어졌대.

윗못은 예술대학 동천고 일대였대 삼공년 일제강점기 새로 만든 못 못자리 위 밤새워 전조등 밝혀 의사 미군 찾았대

불상추 놀음

용주면 여자들이 상추쌈을 싸먹으며 신세타령 친목 도모 하루를 즐겼다네 쌈 싸며 눈 흘기기도 재미난 놀이었으리

두레 논매기

용주면 4개 마을 못골 돌개 분개 당골 논매기가 끝나면 함께 모여 놀이마당 요즘엔 아이들 따라 운동회로 달랜다네

대연초등 그 자리는 일본 제9초등학교 조선인은 못다녔대 일본인 학교였대 소나무 휘인 가지가 옛날 일을 말해 주네

삼나무를 심어 베틀로 가가호호 베를 짜고 지신뺨기 소싸움에 쫓불놀이 대보름 달집태우기 대연동은 신났대

그 옛날 망태 이름 '홍치리' 멘 머슴들이 풀을 베러 가며 부른 노동요

가 여울진 곳 대연동 못골시장에 애환만이 남았구나

마성(목마성)

당곡 석포 우암마을 앞바다에 쌓은 성곽 군마를 방사하여 길러 마성이라 불렸었네 그 시절 변방이었던 남녘 마을 여기라네

감만동

물리칠 감戢 오랑개 만蠻 분명하다 예사롭지 않은 이름 좌수영이 가깝구나 충무공 아니었던들 어찌 나라 보전했으리

갯번덕(용소해수욕장)

갯가 언덕 해수욕장 부경대 그 자릴세 잔디밭 아름다운 모래밭엔 백합 고등 옛사람 '개편덕 가자'며 게 잡기도 했었대

황령산(荒嶺山, 반보기산)

왜놈들 지은 이름 거칠고 보잘것없다 황령산이 웬 말이고 횡강산이 그만 이름 금련산 그 이름 곱구나 금빛 수련 고운 마을

신라적 거칠산국居漆山國 황령산에 있었다네 가야땅 서라벌땅 둘 사이에 있던 나라 놀랍다 이 고장 선인 나라 세워 살았다니

대연동 옛 용주골 반보기 산이었대 용호동 기장으로 시집갔던 아낙네

못골의 봄

들 만나절 친정나들이 바람고개 눈물고개
내 사는 이 고을에 아리도록 서린 전설 한 해 동안 쌓인 회포 만나절이
야속하다 피붙이 그리운 법은 예나 제나 같은 법

봉대지기산
용소마을 사람들이 봉수대를 관리하니 봉대지기 집이 있어 그런 이름
불렀단다. 땅 밑 굴 해미산으로 봉화 전달 믿었다네

천제등
대연중 높은 뒷산 기우제 지내던 곳 천제를 천지라고 잘못 불러 '천지
산'에일본군 고사포 부대 마당 자리 남았네

지금은
내 사는 못골3길 벚꽃 터널 들꽃마을 박물관 평화공원 문화회관 학교
도 많아 정 깊어 고향만 같은 못골 사랑 내 사랑아

못골시장 양배추는 한 포기 삼천 원
맛은 만 이천 원
살뫼 데친 잎사귀에 완두콩 밥을 말아
초고추장에 콕 찍으면
그리운 남촌에도 봄이 온다

동두름 흰민들레 피고 피고
방풍 개두릅 방앗날 염부목 싹이 트면
산벚꽃 빠꾸기 소리 아련한 봄날
재첩 국 사소오
돌 구이 고구마도 꿀맛이다

황령산 진달래로 꽃전을 부쳐라
아미 고운 아내가 좋아하는 방앗날도 뜯어라
꽃기운 가득한 아이들의 학교가 그리운 날
양지 마을 못골엔
들꽃을 키우며 여전히 세상을 걱정하는 시인이 산다

ㅣ 글뜰 김종화 ㅣ

• 시인, 자생식물연구가 • 남촌문학관장, 들꽃정원 초애원 지기 • 《부산문학》 주간
• 시집 『흰금낭화 같은 그대』 『田園』

황령산 외 2편

김 한 빈

바람고개 넘어 사자봉 건너
산이 쌓아 올린 그 높이에 오른다.

푸른 편백 숲이 곧게 서서
장대비 맞고 때론 눈바람 쐬 때
산은 그 높이를 묵묵히 쌓아 올렸다.

내가 올라온 길
누가 이끈 듯 꿈결 같아도
몇 갈래 길과 그 높이에서 만나
서로 부둥켜안는다.

만일 다른 길로 왔다면
찬란한 아침 해를 보거나
핏방울 스민 저녁놀을 보거나
더 굽이치는 길을 따라
그 높이에 닿았을 지도 모른다.

산다는 건 어떤 길을 걸어도
산이 쌓아 올린 그 높이에 오르는 것,
결국 산의 그 높이가 문제다.

오는 길에 언뜻 들었을까?
대숲 옆 산절 마당에
흰 구름 흐르는 소리.

하산 길에 들을 수 있을까?
산이 그 높이를 스스로 낮추는 소리.

새봄, 정월 대보름

설날 아침 밀양 영남루
까치 노랫소리가 논밭 여기저기 떨어져
냉이와 달래의 새순이 되고,

그 새순이 파릇파릇 자라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
정월 대보름날 가지산을 넘으니,

석남사 선방의 스님들이 동안거를 마치고
우두둑 처음 무릎 펴는 소리를
양산 통도사 서운암 된장이
눈 덮인 향아리 속에서 듣고 놀랐는데,

그때 수영 광안리 백사장
달집의 불이 활활 타올라
연중 가장 크고 노란 달을 불러와,

대연동 평화공원
삼동을 지낸 목련 한 가지가
그 달빛으로 몰래 꽃봉오리를 맺는다.

풍경 4

- 지하철 2호선 -

지하철 2호선이 대학가 대연동을 지날 때 갑자기 아브라카다브라 7음
절의 소리를 내면서 호그와트 마법학교로 달려가는데, 열차 안엔 수많은
해리, 론, 헤르미온느, 지니, 말포이 등이 뻑뻑하게 들어서서 모두 청바
지를 입고 나이키 신발을 신고 머리엔 둥근 귀마개를 쓰거나 가느다란
청진기를 귀에 꽂고, 좌석에 앉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 손바닥에 네모난
마법사의 거울을 꺼내 들여다보며 아마도 호그와트의 주문 외는 공부를
하는 듯한데, 간혹 그 신기한 거울을 귀에 대고 주문을 외우기도 하지만,
옆 사람에겐 아무런 관심 없이 공부에만 집중해서 볼드모트가 봐도 기
특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ㅣ 김한빈 (김성민) ㅣ

• 《문장 21》시(2014), 평론 등단 (2017) • 부산문인협회, 남구문인협회 회원, 《새글터》《상상》동인,
• 경성대 외래교수, 경성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아모르파티 외 2편

김 혜 영

톡 쏘는 사이다 같은 곳
가슴이 확 트이는
해파랑 기암절벽

세찬 갈바람 부는
신비의 비경 언저리
너럭바위에서

뽕다리 김밥 한 입 물고
해안선에 하얀 포말을 토해내는
아련한 그리움

삶의 뒤편길에서
날갯짓으로 유혹하는 갈매기 떼
비움과 채움의 언어로

아모르파티를 하고 싶다

해변 시장

가을 전어가 펄떡이는
해변시장
고무 대야에 고물거리는 낙지
카페 유리창 너머
넘실거리는 광안리 파도가
쓴 커피 찻잔에 일렁이는 오후
영덩이는 길게 빼고
우아함은 비닐 가방 속에 구겨 넣고는
힐끔거리는
사람들의 눈치는 아랑곳없이
그 속에 끼어 주절거리는 허전함
용광로 같은 폭염은
여름날의 끝자락 언저리에서
고개를 힘없이 숙이고
그 시끄럽던 매미 소리
잠잠하다 못해
해변 시장은 적요가 감돈다.

봄의 왈츠

아침 햇살에 해무가 벗겨져 가고
겨우내 움츠렸던
오륙도 선창이 기지개를 켜다

장대에 줄줄이 걸린 갯바람은
무자맥질로 잡아 올린
해녀의 삶을 어루만지며 지나고

봄바람에 실려 온 풀꽃 향기는
살포시 다가와
진한 입맞춤하며

해파랑 언덕에서
지천으로 핀 하얀 별꽃 무리들과
봄의 왈츠를 추련다.

ㅣ 김혜영 ㅣ

• 서울 출생 • 부산문인협회, 부산남구문인협회, 부산시인협회 회원 • 수상 고운 최치원문학상 본상,
한국가람문학상, 계간 문예시대 작가상 • 시집 『행복을 그리는 남자』 외 4권 상재

오륙도 1 외 2편

남 경 숙

암흑이다
눈을 크게 떠 보아도 해무 뿐
아무 것도 없다

남해와 동해의 분기점
오륙도도
다섯 여섯이 아니라 그냥 없다

팽이 갈매기도
가마우지도 간 곳 없고
적막만 나를 일깨워 준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움의 그곳에는
천년을 견뎌낸 오륙도가 있다

함께하는 새벽

묵향이 짙어짐을 기다려
오륙도가 솟는다
파도도 선잠에서 깨지 않은 신 새벽
동해 바다의 용솟음도 숨죽이고
붓끝을 모은다

떨림으로 이어지는 한 획이
조화의 아름다움으로 열리고
뿌듯함으로 이어지는 행로

순간이 흘러 쌓이고
붓의 사각거림은 혼이 더해져 캘리그래피가 탄생한다
그날을 위한 직시
날개를 단다

어느새 뜬 둥근 해가 반짝이는 파도를 잉태하고
배부른 아침이 온다

맵다

큰 파도가 방패섬을 지운다
오륙도가 다섯이다
금방 버무린 겉절이 맛에
연륜 맛, 손맛, 전골 맛 다 살린
여름밤 저녁 시간이 그 속에서 분주했다
아니게 맵다
여름 열무의 매운맛 무더진 입맛의 짠맛
파도처럼 지우고 싶다
내일이면 잠잠해질 저 태풍의 울부짖음보다 먼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듯
빈 김치 통을 씻는다
요즘 들어 더러 있는 일이다
손맛이 예전 같지 않다
씻기지 않는 서러움이 빗줄기 되어 때린다

지독히 매운 밤이다

Ⅰ 남경숙 Ⅰ

• 《문학도시》《문예운동》등단(2009) • 시집 『그대와 함께』 『가을 한 폭』

오륙도에서

류수인

백운포 넘나드는 푸른 파도가
갈매기 깃 접는 오륙도 감돌 때
휘돌아선 암남공원 방파제에서
해녀들 물질해 온 해삼 명게 먹던
아 그 시절 그림구나

공중에는 오락가락하는
케이블카 불빛
문명의 쾌락에 사람들 흥겨워할 때

불 꺼진 등대 뒤에
오륙도 오 형제는
등댓불 반짝이던 옛 시절 그리는지

우두커니 두 손 놓고 하늘만 바라본다.

| 류수인 |

• 《한국시》등단(1996) • 한국문인협회 서정문학 연구위원회 위원 • 부산 문인협회 재무이사, 부산 시인협회 이사, 오륙도 낭송문학회 회장 • 수상 〈한국시 문학대상〉, 〈노산문학상〉, 〈대한민국 스타예술 시부문 대상〉 외 다수 • 시집 『그리움도 재산이다』 외 8권 출간

국화꽃 향연 외 2편

민훈기

국화꽃 향기에 물든 가을
바람조차 군무로 향연을 돋운다

늘어나는 나들이객들 얼굴에
국화처럼 피어나는 기쁨이 아름답다

국화 축제가 열리는 평화공원에서
영원을 뛰어 넘지 못하고
마무리하는 한해가 아쉽고 처연하다

시와 꽃이 하나 되는 시화전에서
사랑을 느끼고
소통의 의미도 배우며
국화꽃 향연에 취해 본다

등대

외로움에 지쳐
갈매기도 길을 잃었는지
돌벼랑에 앉아 바다를 본다

고단해서 닳을 내리고 싶어
파도를 신고 돌아오는 외항선
벧길 따라 항구를 찾는데

어두운 밤하늘에 내리는 별빛은
바다를 더듬는 강한 빛에게
항해하는 배를 인계한다

세찬 바람이나 거센 파도에도
두려움 없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나침반

인적 없는 외로운 오륙도에서
큰 눈을 깜빡이며
실 새 없이 눈짓을 한다

백운포 산복도로에서

구름은 햇살을 꺾어 바다 깊이 묻어버리고
백운포를 돌아 나오는 산복도로에 안개가 자욱하다
거미줄에 걸린 마음 끈적끈적한 외로움만 더해 발길이 무겁다
병실은 아내의 발목을 물고
김스는 수갑을 채웠다

의지할 곳 없는 황량한 내 마음
종이 위에 쏟아 부은 아내의 글
눈물이 글을 읽는다

평소 함께 걷던 백운포 산복도로
바람은 차가운 미소만 남기고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나는 혼자 걷고 있다

가늘 길 없는 마음으로 서성이는 발걸음에
해풍은 텅 빈 내 등을 두드린다

Ⅰ 민훈기 Ⅰ

• 《부산시인》 등단(2016) • 부산문인협회, 부산시인협회, 부산남구문인협회 이사, 부산남구문인협회 사무국장 역임 • 시집 『사색하는 하루』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와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조각 공원을 걷다 외 2편

박 순 미

어스름이 발목을 간질인다
버거운 하루를 지나온 사람들
수북 쌓인 발자국

솜털처럼 가벼워져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야기꽃이 피고
아이도 강아지도
걸어도 다리 아프지 않는 즐거운 동행이 된다

콜롬비아 인도 노르웨이 영국 등
심혈을 기울인 조각들 앞에 발길 머물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화해〉는 생각이 깊어진다

무심코 지나던 작은 풀잎들
설레는 기척으로 향기 머물고
결의 박물관에서 나들이 오신 옛 선인들도
쭉쭉 뻗은 나무들 사이 도포 자락 조심스럽다

유엔모지에서

천년이 흘러도 젖을 수 없는 기억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댄
시간의 무덤은
조금씩 두터워지고
옹이로 남은 그날의 눈물도
이젠 말라붙어 눈부십니다.

내가 늙어 사라지고
아이가 자라나 늙어져도
영원히 젊은 아름다운 청춘
우주의 넓은 가슴
청량한 기운 속에 든 명령들이여
고맙습니다

굳센 기운으로 영원히 이 땅을 지키실
은인을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아름다운 장미꽃 동산에
감사의 마음 등불이 되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스카이 워크에서

숨을 고른 바람의 눈길 머무는 곳
푸른 도화지에 예쁜 그림처럼
황홀해요

이곳을 지날 땐
한 세상의 무게가 흔들리는 듯
떨려 오고
움켜진 집착의 손도 놓아 버려요
발밑은 물결이 넘실거리고
몰래 숨었던 바람도 와락 놀라게 해요

모자 단단히 붙들어요
바짓가랑이 걷어 올려요
심술부리는 바람은 붙들지 말아요

철썩이는 파도 소리도 숨어버린
사람들 웃음소리
하늘인지 바닷속인지
대마도가 해엄쳐 오고 있어요

영도 봉래산에 으스스 불빛이 날아들면
떠난 자리에 외로움만 남아
젖은 날개를 말리는 갈매기 등 위로
하나 둘 그리움이 매달리고 있어요

| 박순미 |

• 국제펜문학 한국본부 회원, 부산문인협회 이사, 부산남구문인협회 부회장 • 새부산시인협회, 가톨릭문인협회, 고살문학 회원 • 시집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 『시간에게』

백운포에서 외 2편

배 기 환

하얀 구름 같은 파도가 들썩인다고 백운포라 했던가 백운포 일출을 보
지 않고 사랑이 이러니저러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 열꽃을 피우며 서서
히 뜨거워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멀리 동해에서 발화된 한 자락 불씨가 순식간에 바다로 번져올 때면
세상은 금세 황홀한 사랑의 화상을 입는다

온통 불이 되어 하늘을 깨물고 있는 저 수평선

방파제 아래로 밀려오는 육중한 바다가 갯바위에 이마를 부딪친다 안
개 자욱한 여명의 해안 길 따라 새벽잠 설친 갈매기 떼 수많은 바다의
사연을 콕콕 쪼아 물고 끼룩끼룩 허공으로 날아오른다

포세이돈 신전처럼 우뚝 선 저 등대는 간밤에 얼마나 많은 불씨를 바
닷속에 은밀히 산란해 두었을까 원적을 잃고 매몰된 땅속 바다에 제적
된 파도가 꿈틀거린다

신선대神仙臺

물안개 자욱한 신선대 바위 위에
아득히 발자국만 찍고 떠났던 백마가
울창한 섬쥐똥나무 숲을 헤치며 다시 나타나
동해 바다의 수평선 허공을 향해 넓다 함성이라도
내지를 것 같이 바다가 그리운 날이거나
용지에 머물며 아직도 승천하지 못한 공룡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산 능선을 기어 올라와 자꾸만
내 속으로 꾸역꾸역 찾아들 것 같이
마음이 몹시 허허한 날이면 반드시 그날 밤
내 꿈속에서는 일찍이 이곳을 다녀갔던 고운 선생이
풍류를 찾아 산천을 떠돌던 그 고운 선생이
“이 사람아 파전에 얼큰한 약주 한 잔 어떤가?”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속으로 자꾸만 나를 불러낸다
일출의 햇살과 일몰의 노을을 번갈아 마시며
돌 틈 사이에 웅크리고 자란 동백꽃이 금방이라도
사랑을 고백할 것처럼 빙긋이 웃는다
산 아래 해안선 금을 허물며 물류 강국을 꿈꾸는
대형 크레인들이 들고 나는 배 붙들고 분주하다
오늘도 신선이 놀다간 그 산책로를 걸으면
이명처럼 고운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24번 시내버스

청정한 파도가 다닥다닥 모여 살던 쉼자리에 둘러앉아 갓 뜬 생선회
몇 점을 안주삼아 훌쩍훌쩍 인정을 나눠 마시며 바다 건져 먹고살던 낮
익은 얼굴들은 어디론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낮선 이들만 북적거린다

오륙도가 있는 백운포 바닷가가 종점이라는 24번 시내버스는 엘피지
가스 대신 바닷물만 울컥울컥 퍼먹고 다니는 것인지 젊음이 질퍽거리는
대학가를 지나칠 땐 파도처럼 유별나게 몸을 흔들거린다

교통안전공단 안전하게 거쳐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합격을 통과하
고 오륙도 너머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에도 감기 몸살 한 번 없이 뻥질나
게 고갯길 넘나드는 그는 그동안 얼마나 숨을 헐떡거리며 용호로를 헤
집고 다녔을까

배기환 |

• 경남 하동 출생 • 월간 『시문학』 등단(1997) • 서정의 공간 대표 • 부산문인협회 시분과위원장 역임
• 부산일보 해양문학상, 부산문학상 본상, 한국해양문학상 대상 등 수상 • 시집 『전생을 굶다』 외 다수

꽃무릇 외 2편

- 장자산길 꽃무릇 군락지를 보고 -

성 주 섭

그립다

너무 그립다

긴 목에 립스틱 바르고 기다린 일 년

진홍 얼굴에 주렴^{珠簾}까지 달고

임 향한 꽃 춤 보름 동안 추었지만

날 한번 본적 없으니 어찌 날 알겠는가

하늘은 무심한 그대 잊으라며

꽃잎 무지개 회수하였고

난 선혈 쏟고 산화했지

꽃 눈물 흘리는 나에게

훗날 바람이 전한 소식

짙은 초록 옷 입혀 주었다고

그래도 고맙다

그리운 그대여!

오륙도 五六島

바다가 청색으로 물들 때
대해로 용트림하다 잠긴 용대龍臺
부산항 문지기 족보 있는 여섯 섬을
애매하게 오륙도라 부르네

등대에 여의주 물고
뱃고동 그리워 흑해에 눈짓한 지 팔십여 년
석간수 방울방울 머금은 엄마 뱃속에
지성 드린 양초 향 가득 품고
가마우지와 친구한 굴섬을
표족한 용린龍鱗으로 지키는 송곳섬

갈매기와 독수리가 노닐던 정상에
만세덕 비 전설 안고 기도하는 부처 수리섬
폭격으로 자귀나무 산화하자
날아온 솔씨 소나무로 자생하여
위령제 지내는 솔섬을
파도와 세찬 바람 막아 주는 방패섬

오늘도 육 형제 섬은
별과 손잡고 달을 불러 수작酬酢하더니
파도와 다투다 잠들었다
여명이 지나고 숨비소리에 눈 뜬 형제들
누군가 육도六島야 불러주니
급히 문지기로 돌아가네.

신선대

신선대는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29호다

신선 찾아 간 그 곳
신선은 다시 오지 않았다
풍악 소리 대신 신선 소리 들린다

인간아!
내가 놀던 옛 자취가 없다
무제등 큰 바위에 새긴 발자국
내가 타던 백마의 발자취
내 탕건이 벗겨져 생긴 탕건바위
보리수나무와 울창한 수목 속 백사청송
맹물비알 다다목 명소 모두 안 보인다.

인간아!
고운이 경관에 놀라 새겼다면
진필각자眞筆刻字는 어디에
이래도 부산의 5대중 하나 8대중 하나라 할 수 있나

옛 모습 돌려주면
풍악소리 울리며
유하주流霞酒 마시는 신선 볼 거다

Ⅰ 성주섭 Ⅰ

• 《문예시대》시 등단(2017) • 사회복지학 박사 • 예절지도사(국가공인)

황령산 진달래꽃 외 2편

손 옥 자

진달래
곱게 피어 황령산 오르던 날
가는 봄
아쉬운 봄꽃

산등성이 외줄기에 삼킨
풀숲에 앉은 시의 동행
진달래꽃 만발하다

봄바람 짧은 인연
밤새워 우는 소쩍새
진달래꽃으로 살다가는
풀처럼 눕는 날

편백 향기에 취한 내게
제 늙는 줄 모르고
절간의 뒤뜰 같은 그늘에 앉아
풍경처럼 울고 웃다

유엔모지

강물은 혼자서도 흐르는
법을 안다
바람은 남의 가슴에
생채기만 남기고

달은 잔혹해서 새처럼
숫구치는 새벽에
6월 한낮의 땀별 흐르는 땀이
누군가의 젊음 나라의 부름에
목숨 바쳐 산화한 영령들이여

형제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죽음도 불사한 용사들이여
영원의 순간을 여기에 누워
복사꽃 향기로 달래는 마음이

어느 소녀의 풋사랑
홀로인 그에게 와서
국화 한 송이 묵념으로
꽃아 놓았습니다

이기대 갈맷길의 파도

날름날름 흰 포말의
긴 헛바닥으로
거울의 말 입김 들이키는 소리

동생말의 등짝을 후려치듯
바다는 말 울음으로
오금이 저리도록 쉼다

숨 가쁘게 들이켜는 물거품
거꾸거꾸 마셔 대는 바다
성이 차지 않는지

연신 연방 받아주는
절박한 바다
아버지 품 같은 수평선
쪽빛 옷이 그리운 저녁노을이다

Ⅰ 들꽃 손옥자 Ⅰ

• 문예시대 등단(2010), 부산문인협회 이사, 불교 문인협회 이사 • 부산시인협회 회원, 오륙도시낭송 문학회 부회장, 고실문학회 총무, 재무국장, 재능시낭송 부산지회 총무, 재무국장, 교육국장 역임
• 시집 『相思花』 외 다수

이기대, 그 곳에 가면 외 1편

송 순 임

1. 아버지와 진달래

그 곳에 가면 아버지가 보인다.

하늘과 바다가 감싸 안은
길도 없는 절벽을 돌아갈 때 난
아버지 손을 꼭 잡았다.

그 곳은 낭떠러지
철썩이는 소리가 발밑에 있어도 난
아버지 등만 바라보았다
눈길 따라 진달래가 팔랑거렸다

지금도 그 곳은
절벽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철썩이는 파도도 그대론데
진달래 꽃길 따라 미끈한 돌레길이 생겼다

그 곳에 가면 진달래가 있다
나의 젊은 아버지가 그 곳에 있다.

2. 어머니와 도토리

그 곳엔 도토리가 많이 있었다.
다람쥐 보다 날쌔 숨쉴로
바구니에 주워 담았다.

가끔 엄마 몰래 깨물어 보지만
여전히 뚫은 도토리를
아드득 아드득 맛있는 소리 때문에
뻥뻥다가 다시 입에 넣곤 했다.

거칠게 묵을 쏜 엄마의 맛보다
미끈하고 탱탱한 도토리묵 무침은
뚫지도 거칠지도 않다.

그때는 도토리묵을 깨물어 먹었는데
지금은 도토리묵을 오물모물 먹는다.

그때는 모든 게 거칠었고
지금은 모든 게 매끄럽다.

그 곳엔 아직도 도토리가 있고
나의 젊은 어머니가 그 곳에 있다.

유엔공원

평평한 길 위에
바람이 눕습니다.
하늘도 반쯤 내려앉아
아무도 모르는 작은 연못
새끼 오리들 모처럼
울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화가 있는 곳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달려와
눈 감아도 어느새 발길 닿는 이곳
초록 물드는 가을비 속에
내가 있습니다.

고요해서 슬픈 길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
그래서 처음부터 없던 길
이름 모를 이국의 아름다운 청춘
숲 모퉁이 돌아설 때
하늘가 불그스름 눈물 흠칩니다.

ㅣ 송순임 ㅣ

- 《시와시론》 등단(1997) • 《문학도시》 작가상 수상 • 여류문인협회 회장 역임
- 남구의원, 부산시의원 역임 •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회원 • 한국문협, 부산문협, 여류문협 회원
- 부산카누연맹회장 • 대전유치원이사장

오륙도 등댓불 외 2편

신 기 용

바위섬 깔찌 위
동그마니 잣추는 길

한 사발 자리끼 몸을 달래는 밤, 바닷물에 곱삭은 꿈 털떡지게 끌어안
고 어루만지는 밤바다, 애무하듯 훑아 펴는 파도의 굴곡 밤새껏 허물어
대는 어둠의 벽, 갯내 머금은 바닷바람에 맞선 험난한 삶, 어루쇠 같은
바닷사람 가슴마다 삶의 윤슬이 꿈길처럼 찰랑댄다.

화사한
입꼬리 빛을
등댓불이 끌어당긴다.

봄비는 황령산

때에 찌든 눈과 귀
맑은 공기에 씻으려
산에 올랐다.

듣그러운 휴대전화 벨 소리
찌렁찌렁한 통화 목소리

전화 오염에 물드는
산

몸살 났다.

짜 잃은 새

황령산 기슭
겨울비 젖은
전깃줄

작은 새 한 마리

머칠
허공을
찌
르
던
울부짖음

가냘프다.

Ⅰ 신기용 Ⅰ

• 신라대학교 한국어 문학 전공(문학 박사) • 도서출판 이바구, 계간 《문예창작》 발행인, 문학평론가,
아동문학가, 수필가 • 평론집 7권, 시집 4권, 동시집 2권, 산문집 1권, 편저 1권 등

이기대 달빛 외 2편

안상균

해변 소나무 숲 사이
둥근 달빛 유난히 맑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가만히 다가가면 여기 보란 듯
마냥 쏟아져 내린다

한나절엔 사라졌다가
동네 한 바퀴 돌아
여기까지 왔으니
이태백이 놀던 달
내 꿈 아닌 게 없구나

노 보살의 입술은 서녘에 가고
산미나리 물빛만 아른거린다

이기대 달빛
한 아름 안고
그냥 시린 가슴 달랜다

코스모스 핀 장자산

초병의 눈빛
마치 아들 모습을 보듯
아직도 선하게 떠오르는데
날 반기는 것처럼
오늘도 그 자리에 서서
가는 허리 흔들며
한밤 내 좋은 꿈을 꾸 모양으로
가만히 서 있지 못했다

이 산기슭까지
어디서 물어 온 것일까
내 품에 뜨는 시선 아랑곳 않고
무심히 내려다보자
해운대 연가가 흘러 나왔다

저기 보이는 오륙도
그리고 봉래산 작은 동백섬 앞으로
한 척의 배가 지나가고

유엔공원에서

현충일 아침
유엔공원을 찾았다

하얀 치마저고리 입은 다도인
죽비 소리에 맞춰
일제히 잔을 올린다

너무 엄숙하여
저절로 몸을 낮춘다

저 이국 먼 곳에서
작디작은 나라를 찾아와
젊음을 바친 용사들
그 묘비에 헌화도 하고
다시금 호국영령을 기린다

휴전된 지 67년
진혼곡 속에 묻어나는 나팔 소리
아무런 제재 받지 않고
허공에 흩어진다.

오. 영령들이여
영면하소서.

Ⅰ 석정 안상균 Ⅰ

• 《오륙도문학》 신인상(2014), 《문장 21》 시 등단(2015) • 부산문인협회 회원, 부산남구문인협회 부회장, 재부정읍향우회 부회장, 현대한국예절교육원 집행부 이사, (사)대한민국도덕운동본부 이사
•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상, 한국독도문학작가협회 이사장상 부산문인협회장 표창장, 부산광역시장 표창장 • 시집 『바람결에 길을 따라』

이기대의 봄 외 2편

염 계 자

개나리 눈웃음에
진달래 수줍다 한다

유채꽃 춤을 추니
벚꽃은
하얀 나비 되어 난다

이기대 언덕 너머
임을 기다리며
우뚝 선 오륙도

새가 물어다 주는 꽃향기에
휘청

파도 소리 정겹다
봄바람 불어온다.

꿈꾸는 나무

솔잎에 옷을 깎는 해풍이
장자산 소나무 아래서 시를 쓴다
건장한 사내들이 펼친
시화 액자에 바다를 그려 놓고
포말로 튀는 언어들이
물구나무를 서면
도시 유랑민들 휘파람을 분다
흩어진 먼지 같은 꿈들
한갓지게 모여 입을 맞추면
꽃땡강나무 덩달아 물결로 출렁인다
바람과 새소리는
속울음으로 난타를 치고
저무는 햇살 아쉬운 듯
나무와 나무 사이 시를 읽으며
꿈을 먹는 식탁 풍경이 된다

기분 전환

밥맛이 없다
 햇살 한 줌 먹고
 마파람에 앞머리 살짝 날린다면
 떠돌이가 되어도 좋다
 몸살로 굳어진 입술 근육 찢룩이며
 오륙도를 마주하고 너럭바위에 앉았다
 넘실대는 밀물이 목젖을 넘지 못해
 재채기만 파도 소리와 힘겨루기 한다
 섬과 섬 사이
 숨어 있는 생명들을 찾아 어루만지고 싶다
 솔섬에 우후죽순 자란 머리도
 가지런히 손질해 주고 싶다
 스카이워크를 타고 오르던 갯내
 저녁놀을 물들이면 나는
 선착장, 길 카페에서
 매운 컵라면을 먹는다

ㅣ 연계자 ㅣ

• 《좋은문학》 등단(2007) • 부산문협, 부산시협, 부산남구문협, 부산불교문협 이사, 부산영호남문협 부회장 • 부산여류시협 회원 • 시집 『겨울나비』

보름달 외 2편

오 종 순

이기대 어울 마당
 산, 바다, 하늘

태초의 전설과 신화
 하늘 나이는 몇 살일까?
 보름달은 몇 번째 생일 무슨 띠일까?

검붉게 타오르는 달집
 합장한 두 손은
 탐욕일까 / 소망일까
 牧羊神일까 / 軍神일까

유난히 평온한 바다
 이름 모를 갯벌레 한 마리
 달 한번 달집 한번 합장한 손길 한번
 그리고는 고개를 가우뚱

환한 웃음
 귀 밑에 걸린 보름달 입 꼬리

태평세월이
 달빛 타고 누리에 내려오려나

동명불원

- 석탄일에 -

저녁나절 먹구름이 안고 떠난 장마
비 그친 뒤 산 빛이 곱고
물 먹은 들꽃 위에 솔바람 자리 퍼면

빈 법당에 부처님
중생이 쓰고 버린 미망 거두며
웃음소리 보일 듯 말 듯

병야兩夜의 종소리 들리면
휘어진 소나무에 달빛 걸리고
표주박 감로수 위에
아기 별 함께 기지개 켜면서
온 세상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

문득 떠오르는 경봉 노 선사 깨우침
문으로 나가려 하지 않고
봉창만 두들기니
백년을 두들긴들
어느 날에 나갈까

十方 세계 한 모퉁이
고뇌의 숨소리 아련한 승방
졸음에 겨운 아기 부처
진흙 소 타고 꿈길을 가네

수미산인가
어머니 품속인가
와서 가는 날까지
아기 부처로 사는 꿈

유월에는

Great Britain 묘역
묘비 22670910
미처 못다 핀 열아홉, R. Cotting Ham
1953. june 산화

당신은 시간 위에 남은 신의 지문

당신은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햄릿의 물음에 답하였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죽음을 택하였노라고

꽃다운 당신
이 밤에는 파란 별 되어
그리운 고국 테임스강 워터루루
다리 위를 거닐고 오세요

1년 365일 이방의 나라꽃
연보랏빛 무궁화로
당신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
잠든 당신을 보며

| 오종순 |

• 《문장 21》수필 등단(2010) 《청옥문학》시 등단(2016)

별

이 만 호

너는 별
나도 별
남구 주민 모두가 별

하늘에 반짝이는 별
프랑스 하늘에 알퐁스 도데의 별
우리 하늘에는 시인의 별

별은 밤하늘을 수놓고
내 마음에는 희망의 별이
반짝반짝 빛난다

| 이만호 |

• 《문장21》 신인상 수상 (수필), 《지필문학》 제70기 신인상(수필) • 부산 남구문인협회, 부산 수필 문인협회, 부산문인협회 회원 • 부산광역시 근무 • 녹조근정훈장 (사)한자교육연구회 여명서당 원장(현) • 한자한문 공인 전문지도사 및 훈장자격 취득, 한자급수 공인 사범자격 취득
• 저서 『주고 싶은 마음』 『한자의 첫걸음』 『한시감상』 『이야기 고사성어』

오륙도 해맞이 외 2편

이 말 레

수평선에 기댄 바다
서서히 붉히며
동녘을 뚫고
하루의 뭇
피는 희망

기쁨이
출렁거리며
붉은 날개 펼치면

눈부시게 아름다운
해맞이
환희의 북이 울린다.

평화공원 국화 축제

햇살 맑은 오전
바람만 드나드는
국화꽃
나비 되어 나르고

자애로운 엄마처럼
꽃들의 기쁨으로
탄성을 자아낸다

사시사철
날개를 돌아 돌던
신비한 그곳에

눈빛으로 남겨둔
옛사랑으로
바람 일렁이며
들어있는 속내를 연다

유엔공원 목련

가지마다 결 고운
꽃송이 피어나면
두근거릴 가슴에
목련꽃곱다

꽃봉오리 눈짓에
봄단장이 화사하고

그믐날
불 밝히는
등불 같은 꽃 아래
서성이던 마음은
달빛처럼 은은한
꽃에 젖어 있어라

ㅣ 이말레 ㅣ

• 충남 부여 출생 • 《문예시대》(2011) • 부산문인협회 이사, 남구문인협회 부회장, 부산시인협회, 가톨릭문인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 회원 • 수상 오륙도문학상(본상)
• 시집 『그렇게 살아도』 『삶의 길목에서』 사진시집 『자연의 삶』 『계절의 길목에서』

적기뱃머리 외 2편

이 종 호

너는 한 때 금모래 은모래 해수욕장
소막마을[牛幕村] 아이들의 물 놀이터
실향을 신고 남포동 자갈치로
오가던 통통배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너는 갔다 허나 네 이름은 살아 있어
왜나막신에 차여 정강이뼈 금이 가고
밤마다 붉은 완장에 시달리는 악몽
함께 했던 그들 곁에 상심을 달래 주었지
네가 다닌 물길 위에 뿌려진 술한 사연이야
우암반도牛岩半島 곳곳에 붉은 화석 눈빛이 돼
7부두 화물로 쌓여 소금으로 재려 있다
역사야 넌 알지 피를 뽑아 군수물자로 바꾸고
함흥에서 흥남에서 밀려와선 가마니 깔은
안방에서도 따스한 망향을 화롯불로 피워,
공동 우물에 야윈 얼굴 거울삼아 비춰보던
피난살이를 신고 오가던 뱃머리
네 무덤 위로 달리는 차들처럼 아직도
바퀴 구르는 함경도 사투리
누렁이의 큰 눈에 담긴 소막마을의
뱃머리 파도소리 어둑하게 들려온다.

오륙도 떠난 한센인들

바다는 한恨이 되어
오륙도에 쌓이는데
손가락 문드러지는 소리
갈매기가 울고 울어
눈썹 빠지는 아침의 햇살은
따갑기만 하다

삶이 닭장 속에 갇혀도
시금치처럼 두고 온 그리움은
겨울을 건너뛰기를 몇 번이나 했던가
그들이 떠난 자리에
아직도 살아 있는 서러움들이
병든 고목 밑에서 고아처럼 울고 있다

이젠 문드러진
콧날 세워
해 같은 눈동자 깔아 끼우고
잃어버린 세월 찾는 재미가
솔솔 불어오는
거친 바다 밀어낸 맑디맑은
강물을 따라 살고 있겠지

대마도

신선대에서 수평선 끝을 바라본다
가마우지 같은 미물 하나
하늘을 받쳐 들고 있다
저긴 사람이 살까 거기선
내가 보일까
그리움이 된 바위들도 있을까
눈물을 닦아주는 바람도 살까
연민도 동정도 출렁거릴까
역사의 증오 덩어리가
양 날개에 얹혀 날지 못하는
한 마리 새일까
찌고만 게 한바다로 그림다
좀 가까운 이웃
친구가 되면 안 될까
굽이치며 밀려오는
저 굽 높은 파도를
박수로 받아주면 안 될까

| 이종호 |

• 월간 《새교육》 전봉건 시인 추천으로 시작 활동(1964) • 현) 부산 남구문인협회원

이기대 二妓臺 외 2편

이 초 우

이기대인지 의기대 義妓臺인지 알 수는 없다만
지금도 넓고 넓은 반석, 언제나 동쪽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쥐라기 후기의
울트라사우르스, 그 발자국 그녀의 전생임이 틀림없어
거뿔거뿔 바윗돌에 붙박여 평생을 사는 따개비
용왕 사갈라에게 발원하길
많은 걸 바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적갈색 갯지렁이로
태어났다가 아무래도 사는 것 답답했는지
우주 공간 같은 너른 바위 내달리는 갯강구로 산 그녀
그러다 어느 날, 촌촌한 이빨로 질푸른 장자산 이파리 씹으며
목 적시러 내려왔던 거대 공룡
두툼한 이마 혹 속 코로 수천 수백 대代를 이어
휴, 휴 한숨 토해 내고는, 뒤뜰 뒷마당 같은
품 넓은 반석 위에서 한 때는 객꾼들 어루만진
환락의 신선으로 그녀가 살았던가, 지금도 깊은 밤
이기대 갯가에는 쉼자리 포구로 나갔던 한 마리 갈매기가
히죽히죽 날개 저으며 까라져 돌아오고
불빛 식은 이른 새벽 또 한 마리, 불과하게
지친 날갯짓으로 가파른 광안대교 교각을 넘어
홀로 돌아오는 모습 가물가물 보였어

장자산* 겨울 어깨

물안개 환각제에 취한 바이칼 호수, 아롱아롱 암청색 물결 잘게 썰어
내는 잡목 가지들

저 가지들의 우직함, 나는 그를 엉뚱한데서 만나 인사를 나누는데, 앙
상한 가지처럼 세세하고, 한편 그가 날 너무 쉽게 생각토록 대했다

언제나 누구 찾아 떠나는 젊은 날의 초상, 산수화를 후광으로 나는 그
를 설득하고 있었고, 그래서일까, 아주 가까운 누가 날, 말은 배역이 막
내 역인지 장남 역인지 묻기도 했지

내가 아이 모르게 사랑하는 방법은, 성인이 된 그 아이 오래 비워둔 침
대 위, 유년기의 ‘곰돌이’ 인형을 꼭 껴안고, 아이가 태어나 날 처음 봤을
때 겨울 잔가지 사이로 지나가는 물빛 같은 눈망울을 비벼주며 중얼 중
얼 뭐라고 말을 걸곤 하는 것

어느 봄날 장자산 어깨의 오솔길 걸으며 내가 언젠가 아주 떠난 뒤, 사
람들의 눈에는 뜨이지 않게, 사뿐거리는 바짓가랑이 연초록 풀잎들 눈
뚱그랗게 만들며 이 정다운 길 다시 찾아와 걸어 봐야겠다고,

꽤 무겁게 보인 장백산의 돌 한 번 들어보니 가벼운 부석^{浮石} 내 어린
손금 같은 겨울 잡목 가지들, 하지만 쉽게 꺾으려 들면 보랏빛 잎 가시
내미는 장자산 엉경퀴

까아악 까악, 아무래도 먹이 찾는 까마귀들에겐 장자산 겨울 어깨가
너무 흰히 보이는 오후다

* 해발 225미터, '이기대 공원' 이 조성된 해안가 산

백련사白蓮寺 가는 길

내가 답답할 때면 자주 가는 곳
 내 거기에 가면 누가 먼저와 날 기다렸네
 나무들 가지 사이, 슬금슬금 걸어가는 쪽빛 물결
 그러다 확 트인 맨 바다 열리는 언덕
 힐끔힐끔 언덕 오르다 보면
 그렇게 반가우면서도 와락 표내지 않고
 몇 그루 나무들 앞에
 옆모습만 보이며 날 반기는 너
 처음엔 깜짝 놀랐으나 두 번쨌,
 아! 자네 또 먼저 와 있었구나 하고 목례를 했네
 나이 삼십도 채 안된 젊음이
 딱 딱딱, 부러질 때의 울부짖음과 그 통증 휘어져
 모자를 쓴 머리 부분 되고
 어떤 결사대의 제복 차림 같은 너의 모습
 그러나 넌 무장한 이념을 괴로워하며 나를 만났네
 아직도 네 죽음보다 더 길게 남아
 나를 흠칫흠칫 놀라게 하며 만나고 있네

내가 적적할 때면 자주 가는 곳
 내 거기에 가면 누가 먼저와 날 기다렸네

| 이초우 |

• 합천군 가회면 출생 • 부경대학교 졸업 • 월간 《현대시》 등단(2004) • 한국 시인협회, 부산 작가회의 회원 • 부산 작가회의 창작 지원금 수혜(2008) • 수상 제3회 『열린시학상』
 • 시집 『1818년 9월의 헤겔 선생』 『웜홀 여행법』

초가집 외 2편

정 마 린

대연3동으로 이사 온 집은 초가집
남구에 유일했던 집
마당은 넓고
우물도 있고 담은 돌담
담에는 늘 담쟁이가 파릇파릇
집을 둘러싼 정원은
수국과 국화가 때때로 만개의 축제를 열고
가을이면 해바라기가 해님 따라 고개를 돌리고
마당에선 배드민턴과 탁구를 치며
바둑이와 놀던 놀이터

그 시절 동래에도 초가집이 몇 있었지만
대연동선 수대 정문 앞 우리 집 밖에 없었다
어느 날
전국소년체전이 열리는 바람에
초가집이 사라졌다
우리 집이 사라졌다

“전국소년체전에 초가집이 보기 싫으니 뜯으시오”
오빠들은 뜯지 않으려

시멘트 벽돌로 담을 높이고 높여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게 하였다
그러나
그러나
하늘에서 찍은 사진으로
초가집을 부수었다
헐기 전 찍어둔 사진은
가슴에 품어 세월 속에 묻고

강제로 뜯긴 집
능구렁이가 나올까 봐 조심조심
지붕을 뜯었지만
구렁이는 보이지 않고
새끼 뱀만 두 마리 나왔다
오빠 뱀 두 마리를 철망에 넣어 두고
“어미가 나타날 거야” 했지만
그 두 마리는 철망을 빠져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때의 어리석음이란
지금은 돈 주고 배워야 할 일

선짓국

기념으로 남겨둔 사진은 빛바래 어디에 잠들었을까
 머릿속에 담긴 그 집터엔
 편의점 건물이 들어서고
 찻집이 들어서고
 어느 날 그 집 4층에서 연극 연습을 하다 보니
 “어! 여긴, 내가 자랐던 초가집 건물 위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니...”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지만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이
 건물은 몇 개로 나뉘어졌네

‘언제쯤 발전하려나?’
 대연3동의 길은
 초가집 뒤로 변화의 바람에도
 그 골목 그 길만 고스란히 남아
 추억과 함께 걷네.

어머니 손길 발길 따라
 어둑해 보이는 못골시장 골목 안
 허름한 가게에는 365일
 꽃을 피우는 연기 자욱하다

문지방이 닳도록
 자매 같은 아지매들은
 해가 달이 되고
 달이 해가 되도록
 의지의 국 맛을
 골목 너머로 퍼지게 했다

참고 견딘 세월이여
 비릿한 내음 품고 품어
 삭히고 삭혀
 응고의 살점 토해내는
 선지의 육체여
 피의 속삭임은
 혀끝에 녹아 미소로 머물러
 지나는 행인들을 유혹한다

하늘의 별이 된 어머니와
맛본 지도 벌써 40년
입맛 까다로운 사람도
속속 참기름 넣고 비벼 먹는 재미
추억 속 미끄럼틀을 타며
그리움을 먹게 한다
핏물이 눈물이며 살점이게

바람고개

황령산 오르다 지칠 쯤
쉬었다 가는 고개

사방으로 길이 나
바람도 수월수월

오르며 내리며 뿜어낸 소금기
날려 버리기 좋은 곳

더우면 아이스깨끼
추우면 차 한 잔에
시름도 녹이고
시트레스도 날려 가는

꼬부랑 할머니도 쉬어 가는 곳
손자 손녀도 머물다 가는 곳

봉수대 그림자 찾아
황령산에 누운 여인 찾아
설렁설렁 바람과 노닐다
힘 받아 일어서는 곳

11월 11일 11시 외 2편

정명희

걸림 없는 길
바람고개

그날이 오면 정해진 이 날만이라도
유엔묘지 비석으로만 남아 있는
그 순결한 아름다운
영혼들을 생각하자.

이국땅 이름 모를 산하에
선연한 붉은 피로 물들었을
동안의 푸르고 푸른 젊음들

마지막 절규했을
어머니 또 어머니
애틀한 소녀의 이름도
11월 11일 11시

오래 오래 뜨거운 마음으로
승고한 그들의 푸르른 넋을
소환하여 기억해 보자

| 정마린 |

- 현) 부산시립극단 단원, 부산연극협회, 부산배우협회 회원 • 부산문인협회 회원, 남구문인협회 회원
- 『오륙도문학』 작가상(2019) 수상 • 저서 『꽃말은 흙이 되어』 외

벽화 마을의 이별

안동네 언덕배기 가파른 산중턱에
다닥다닥 키 작고 낡은 지붕들이
비틀대며 얹혀 있다.

빛이 바랜 벽화 속의 그림들은
희미하게 존재를 잊어간다.

역사의 잔재 속
집 없는 군상들의 처절한
애환의 보금자리

집안에 이름 모를 무덤을
버팀목 삼아
생존의 동고동락으로 치열했던 사람들

마지막 보루의 결별에
골 깊은 주름 사이로
얼룩져 고여 있는 지난 아픔도
사라져 이야기로 남아 있을까

장고갯길

한숨이 듯 땀방울로
가파른 길 힘겨운 길

맞아 줄 정이 살아
그래도 다정한 길

아래로는 성냥갑 조형들이
멀고도 먼 타인의 것으로만 아득한데
아득한 동경으로 서성이는 아픔이다.

어둠은 하늘 더 가까이에
영롱한 별 천지의 유토피아
달무리에 실어 보낸 애환의 잔상들은

걸림 없는 고갯길에
바람처럼 보내리라.

| 정명희 |

• 시 등단(2018) • 부산영호남문인협회, 남구문인협회 회원 • 수상 《세대공감》시 부문 금상

유엔묘지 외 2편

정 선 기

서러운 바닷바람이
이국하늘 낯선 땅에 누운
자랑스런 젊은 넋을 달래려고
저 멀리 언덕을 가로질러
죽음보다 슬픈 몸짓으로 달려와
무덤을 부둥켜안고 흐느낀다.

치절했던 전장의 포연
아직도 아리게 눈시울 적시는데
유엔 깃발 아래 좁은 반도의 땅
멀고 먼 나라 코리아에서
남북을 흙구덩이 군홃발로
자유를 지키려고 피 흘리며 뛰어다닌
코 큰 유 에스 에이, 베레모 잉글랜드, 멋쟁이 프랑스,
남자다운 터키, 까무잡잡한 필리핀, 키 작은 타일랜드 군대
느림하고 씩씩했었지.

돌아가 발 뻗고 누워야 할
고향 땅에 가지 못하고
꽃다운 나이 이국 하늘 아래 묻혔나니

잠들 수 없는 슬픈 불귀의 밤을
저 하늘 빛나는 별이 되어
자유의 종 힘차게 울리리라

광안리해수욕장

새벽 찬 공기에 몸이 젖어
나는 지금 세상의 바다로 돌아간다
밤새 아프도록 날다 찢어진 날갯죽지
기우뚱거리며 바다로 돌아간다
혼미한 정신으로 밤을 지새던 환희의 창 너머로
머뭇 태양은 떠오른다
명멸하던 네온도 몸을 접어 새벽잠에 빠져들고
해변을 가득 메운 인파가 지친 바다를 흔들어 깨운다
바다는 하얗게, 하얗게 비어 가고
환락의 바다는 몸을 뒤척이며 밤을 꿈꾼다

신선대

바다 끝에 걸려 있는 신선대에 올라 꿈같은 세상 꿈꾸는 시늉을 한다

꿈이 아니고는 무엇이 꿈같겠느냐고
꿈같은 사랑을 꿈인 줄 착각하느냐고
꿈같은 세상 꿈같이 살면 어떻겠느냐고
꿈인가 꼬집어도 꼬집힌 채 꿈이런가

석양에 지는 해가 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

ㅣ 정선기 ㅣ

• 시인, 교회복음신문 주필 • 부산일보 논설주간, 부산여대 겸임교수, 동서대학교 객원교수,
부산문인협회 부회장 역임

도르트 수로에 서서 외 2편

정 신 자

도르트 수로
유엔 기념 공원에 가면 만나지
좁지만 맑은 물길

열일곱에 호주에서 온 소년 병사 도르트
이 공원에 잠든 전사자 중
가장 나이 어린 전사자
그를 애도해 그의 성을 따서 지은 이름이지

발목 못 떼어
한참을 바라보는 나의 눈에

열일곱 살의 풋풋함
거기 담은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열정이
세찬 강물 되어
대양으로 흘러가는
그림으로 살아난다.

맘 켜기는 날

이기대 산책길에
젠 걸음 치는
작은 게 한 마리 만났다

녀석
여기가 어디라고
바다는 저 아래인데
이 높은 산길까지

호기심 많은 녀석이
혼자 나들이 나왔다 길 잃었나

집이 있는 바다로
잘 찾아 내려갔을까
등산화에 밝히지는 않았을까

데려다 줄 걸 그랬나
데려다 줄 걸 그랬다

맘 켜긴다.

이기대 해맞이

어둡고
두터운
구름을 제치고
불을 지핀다

가슴에 품고 다닌
젖은 꿈
꺼내어
말린다

I 정신자 I

- 《새시대문학》시 등단(2007) • 이화여대 국문학과, 동아대 교육대학원, 경성대 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 석포여중 교장, 경성대 외래교수 역임 • 한국PEN문학, 부산문인협회, 부산여성문학회,
부산여류시인협회 회원 • 수상 부산여성문학상(제28회)
• 시집 『갯지스에선 아무도 울어선 안 된다』 『그냥 가자』 『세월이 물이다』

이기대 풍경 3 외 2편

주 순 보

이기대 초입에서부터 마중 나온 풀꽃
해국이며 개요등 붉은 서나물이 치장하여 반기고
출렁이는 구름다리 아래 간간이 뿜어대는 포말
종일 들어도 신선한 그 연속성 해조음이랑
감추어도, 감추어도 드러나는 수만 가지의 표정들
시공을 거스른 울트라사우르스가 쿵쿵
공룡발자국 찍으며 다가오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갯바위의 따개비도
물러서지 않고 제자리 보존하며
농바위의 전망대에는 동백섬 누리마루를 지나
행인이 달려오고 광안동 바다 위 하프 현을 뜬
다이아몬드 브릿지를 불러들인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경주하는 수상 오토바이들이
꿈꾸던 환상을 쫓아오고
의기義妓녀를 기다리는 장자산은 육중한 몸으로
신명나게 흔들어도 대잡이의 답신箬神은 기척이 없고
바다 깊이로 젖어오는 해조음의 암호를 해독하고 있다
거센 파도에게 등을 내밀어 준 이기대는
동생말 어울마당 농바위 오륙도로 이어지는 4.7km
10대 트래킹 코스에 그 이름을 달았다

이기대 풍경 9

걷고 싶은 길 베스트 5*로 거듭나면서
이기二妓대냐 의기義妓대냐로 분분한 바람이 불어와도
묵묵히 오륙도는 부산의 내일을 밝히고 있다

* 국제신문이 선정한 부산의 걷고 싶은 길, 다섯 번째에 이기대가 뽑힘,

산 땀이 울다 말고 푸드득
가을 하늘을 열고 있다
갈매기가 끼룩대다 물굽이에 실려
나아가는 바다
이기대에 오면
살아가면서 능선을 타던 험뎅이는
가쁜 숨도 몰아내고 있다
보릿고개 이팝나무 꽃 사연을
바다에 풀어놓고
일출과 일몰의 시간을 재는
해녀 막사 앞 고무 대야에는
성계가 날카로운 가시를 잔뜩
일으켜 세우고 있다 성을 쌓고
작은 바다를 만들며
해삼 성계 소라, 대야에 있는
고 작은 바다에
소담스레 잠겨있는 해녀의 꿈
이기대에 오면
두 의기녀의 전설도
거친 호흡으로 일어서고 있다

문현 바람고개

반보기 산을 향해
아픈 발걸음 부지런히
옮겨놓는다
하늘에 닿아
소통이 될까 하는
그리움을 포개어서
거칠산국 요새에
진입하는 한낮
세월 흘러 등산객들로
후텋지근한데
어머니는 아직
오시지 않았다

| 주순보 |

- 월간 《韓國詩》 등단(1998) • 부산남구문인협회 고문, 거제문화예술제 추진위원장
- 수상 《오륙도문학》 대상 외 다수
- 시집 『꽃씨는 겨울을 생각한다』 『겨우살이가 말한다』 『카페, 에필로그』

신선대

최 방 식

파란 바다 위에 솟은 청산
푸른 꿈이 물안개처럼 피어오를 때
모래밭 해안에 어린 영혼들의 꿈은
해조음 소리에 피어난다.

해안가 송림에 햇살이 들면
송진 향기 녹아 있는 숲속에는
고단한 삶의 조각들이 흩어지고
부서지는 파도소리 사랑의 세레나데가 된다.

신선대 모퉁이 땡물에는
전설과 술한 이야기가 있고
멀리 수평선에 걸쳐있는 추억은
시공을 초월하여 부서지는 파도.

시련과 변절, 살을 찢는 격랑의 세월 속에
변함없이 정절을 지켜내고
오늘도 장엄하게 솟아있는 존재감
파란 바다위에 솟은 청산.

| 최방식 |

- 부산 용당 출생 • 《문학도시》 등단(2018), 《부산크리스천문학》 등단(2017)
- 부산문인협회, 부산수필문인협회, 남구문인협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이기대 해안 길 외 1편

최 옥

누가 해안가 절벽에
길을 낼 생각을 했을까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었을까

살아온 날, 살아갈 날이
걸음마다 목상이 되는 길

세상 속에서 모난 자리
동글동글 저 몽돌을 닮았으면
세상 속에서 매서워진 눈빛
하늘하늘 저 들꽃을 닮았으면

길이 아닌 길에서
방황하는 그대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절망하는 그대

이기대 해안 길을
천천히 걸어보지 않겠나

절벽이 어떻게 길이 되는지
따라가 보지 않겠나

평화공원에서

오늘, 세상은 참 평화로웠다
이 평화를 위하여
나, 무엇을 보았는가 묻는다면
그저 침묵할 수밖에

아무 것도 보탬 것 없이
햇살에 흔들리던
나무 끝에서 본 평화

오늘,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나 무엇을 보았는가 묻는다면
가만히 나뭇잎 하나
흔들어 볼 수밖에

그 평화가 좋아서
잠시 미소를 보탬 것이 전부지만
나뭇잎의 흔들림 속에서
세상의 중심을 보았다

| 최 욱 |

• 《시와 비평》으로 등단(1992) • 한국시인협회, 부산문인협회, 부산가톨릭문인협회, 부산남구문인협회 회원 • 시집 『엄마의 잠』 『한사람을 위한 기도』 『내가 빛나는 이유』 『눈물 속의 뼈』와 다수

비, 에필로그 외 2편

최 인 숙

비가 내리면
황령산을 향하여
바람을 마주 받고
해염 쳐 나가는 물고기가 된다
끈끈한 습기마저도
미끼가 되어 끌어올리는
풍요로운 어장
감히지 않고 빠져나가는
물고기 한 마리의 비늘이 숲을 반짝이는
바다가 있는 산으로
비가 내리는 날
달려가
물고기가 되든지
바다가 되든지
무작정
그곳에서 비를 맞고 싶다

절벽 위의 농바위

- 이기대 갈맷길 -

절벽 위에 섰어도
두려움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내 할머니의 형상화라 그런 걸까
먼 데서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먼저 뛰어 간다
삶은
절벽 위에서도 견뎌내는 것이라고
달려가는 나에게
수평선을 떠나 달려오는
파도를 향해 말하는 것이리라
파도야 아프더라도
파도는 파도가 되어야 한다고
사람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래야 바다가 사는 것이라고
그래야 사회가 평화롭다고
다정하게 일러 주는 것이리라
삶은 때로는 절벽과 같을 지라도
절벽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리라
바다는 파도와 함께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그리하여 이루어지는 다 함께

오늘도 절벽 위에 선 농바위
자연스럽게 살다 간 할머니의 비석이다

장자산 숲속 시화전

가을빛에 익어가는 장자산 숲에는
길쭉마다 민들레처럼 질긴 생명력들이
감성의 글귀 위에 잎을 내고 꽃을 피운다

그 속에는
노래가 있고
사랑이 있다

시간의 강물 속으로 흐르는 인생
소용돌이치는 삶의 노래가
장자산을 붉게 물들인다

작은 캔버스마다 서려 있는
따뜻한 마음과 마음은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잠시 머물게 한다

ㅣ 최인숙 ㅣ

• 부산시인협회등단, 부산문인협회회원, 영호남문인협회부회장및편집위원, 불교문인협회홍보이사, 남구문인협회이사, 현대작가연대회원, (현)남사회포토클럽회장, 한국사진작가협회회원, 한국창작가협회회원 • 수상 오륙도백일장 장원, 영호남문인협회 작품상, 시사랑 전국시낭송대회 특별상, 세대공감문예한마당금상 • 시집 『가슴 속에 뜨거운 꽃이 피어나다』 『소소풍경』 『흙비』

오륙도 반딧불이

최 철 훈

꾸부령
고갯길 너머
반딧불이가 산대

에이
설마

아냐
진짜야

오륙도 여섯 형제
그들도 봤대

진짜로
그럼
진짜지

그날 밤

새도록
꽃비가 내렸다.

ㅣ 최철훈 ㅣ

• 동의대 대학원 현대문학 전공, 《월간문학》등단(1990) • 한국해양문학상(시, 제3회), 오륙도문학상(5회), 부산문학상 대상(22회) • 계간 종합문예지《문장21》발행인 • 시집 『부산 아리랑』 외 다수

바다 외 2편

한 정 미

바다를 보면
견잡을 수 없이 설레는 내 마음은
은빛 파도가 되어
한 아름씩 한 아름씩
푸른 물감을 풀어놓는다

하늘이 내려앉아
하늘과 구름과
바다와 파도가
하나 되어 맞닿은 곳
오륙도 수평선 저 너머
꿈을 실은 통통배 하나 지나가고 있다

천년의 침묵을 깨우려는 듯
힘찬 날갯짓으로 솟아오르는
갈매기의 비상
내 꿈도 덩달아 기지개를 켜다

하늘이 열리고
그 사이로

오색의 무지개가 빛을 발하면
양다문 조개껍질처럼
달렸던 내 마음의 문도 열리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넉넉함
어디선가 불어오는 솔바람 소리에
가슴이 더욱 팽팽해진다.

눈을 크게 뜨고
오륙도 바닷가에 서면
하늘도 푸르고
구름도 푸르고
바다를 닮으려는 듯
내 마음도
끝없이, 끝없이
푸르러 간다.

양지골 한글 교실 1

감만동 양지골로171번길
한글 교실 어르신들
글 읽는 소리

기억 나온 디근 리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지나가는 바람도
조용히 귀 기울이네

마음은 아직 열일곱 살
콩닥콩닥 가슴속에
글자 꽃 피어나네

주름 퍼진 얼굴에
웃음꽃도 활짝

감만동 양지골 한글 교실
오늘도 그곳에는
글 읽는 소리

어르신네들 오랜 꿈이
익어 가네.

양지골 한글 교실 2

한글 수업이 있는 날은
내가 더 설렌다

이번엔 또
어떤 작품을 들고 와서
수줍은 미소로 조심스레 내미실까

배우지 못한 한을 꺾꺾 눌러 가며
처음 쥐어 보는 연필, 색연필로
어느새 시인이 되고 화가가 되었다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면
“예”하고 대답해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어르신들

한 자 한 자 깨우치며
장님이 눈 뜬 기분이라고
표현하는 그분들에게서
삶의 지혜와 열정을 배운다

한글 수업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는
그 한 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고 큰 보람인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게 더 많은 이 시간을
가슴 설레며 기다린다

| 한정미 |

- 월간 《문학도시》 신인상(2015) • 《문학도시》 교열기자
- 부산문인협회, 남구문인협회, 오륙도낭송문학회, 문학중심작가회 회원

광안대교 외 2편

홍 종 철

다리는 다리를 부리나케 한다

남만의 구간을 간결하게 드리운
첩경이 도시의 품위를 업그레이드한다

정수리의 프레임이
육화된 지느러미를 꼬집어내고 있었다

이음매의 소음이 후크송처럼 따라붙었다.

육로를 포복하던 가로등 행렬이
율동 구조로 휘인다

부름이 상존하는 목적지에는
누군가의 출발점이 서성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알게 모르게
건너지 못하는 다리가 있다

오늘도 나는 그 다리를 건너다 말고
규정 속도(80km)를 가다듬는다

속도에 규정된 내가 팬스레 고급져 보였다.

관해정*에 오르면

시시각각에 따라 하는 말도 달라진다

하얀 무늬 착란이
자꾸만 사나워지려고 한다

팽팽한 긴장을 경청하던 메아리가
날개의 떨미를 쏘아 올린다

안광에 밀려난 광안대교가
발자국의 정적을 박음질한다.

인양된 이마에서 뛰어 내린 사투리가
짐승 남을 사육했지만
육화된 배수진은 걷어내지 못했다

무너지는 시각이며
청각이며 나머지 오감까지 후 불고나면
구전으로 전하는 이끼 같은 전설이 뭉클해진다

관해정 청마루가 턱을 괴고
바다 속을 훤히 엿듣고 있다

* 관해정(觀海亭) - 부산 남구 용호동 장자산에 있는 정자.

편백나무 숲

목이 꺾이도록 위를 올려다본다

작하게 자라

동량이 되라 이르시던

키가 크신 선생님을 생각한다

지도 편달을 풍기는

樹林에서 내 유년의 오늘은

어김없이 지쳐있어야만 했다

꿈이 무거워

꿈꿨던 친구들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있을까

정성껏 걸어온 길을 밀치고

나를 들어서면 수많은 내가

수많은 질주를 불러 세우곤 했었다

무형의 질료 하품. 한 사내의

실없는 공명통을 수시로 통기는 思惟의 숲 길,

달팽이 둥근 시간이 푸른 꿈길을 달그락거린다.

Ⅰ 又松 홍종철 Ⅰ

• 경남 산청 출생 • 계간 《부산시인》 시(2011), 월간 《문학도시》 수필(2013) 등단.

• 부산문인협회, 사)부산시인협회, 부산남구문인협회, 경호문화회 회원 • 시집 『백일홍 붉은 나절』 외

담론

수필

강인수 / 권채영
김새록 / 김정화
김종화 / 류수인
엄명자 / 윤미영
이만호 / 이명섭
조을홍 / 조혁훈
/ 최방식

방패섬의 담치

강 인 수

오륙도는 그 위치와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데서 유래한 것이며, 방패섬과 솔섬의 아래 부분이 붙어 있어 썰물일 때는 하나가 되고, 밀물일 때는 두 개의 섬으로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육지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작은 섬이 방패섬인데 세찬 바람과 파도를 막아준다는 뜻에서 방패섬이라 불렀다 한다.

오륙도 근처는 조류가 매우 빨라 옛적엔 뱃길로서는 매우 위험한 곳이다. 특히 사리(滿潮-음력 8일이나 23일) 때나 조금干潮 때는 더욱 물살이 거센 곳이다. 옛날 이곳을 지나는 뱃사람들은 항해의 무사함을 기원하기 위해 해신海神을 위무하는 용신제를 지내기도 했다 한다.

나는 결혼한 1969년 봄부터 32년간 대연동에 살았고, 2001년부터는 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 아파트로 이사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 어언 51년을 남구에 살았다.

1969년에 수산대(현 부경대)에 근무하는 친구를 만나러 캠퍼스에 갔을 때는 정문에서 가까운 지금의 로타리 저쪽은 바다였다. 현 부경대 부지의 2/3는 바다였고, 엘지메트로시티도 동국제강 부지였지만 반은 바다였다. 1969년 대연5동 자리는 큰 못大淵이 있었는데 그때는 매립이 되어 못 둑이 반쯤 남아 있었다.

나는 바다를 좋아하여 여름철이면 줄곧 바다를 찾았다. 특히 담치(홍합) 잡는 것을 여유 있는 사람이 골프를 즐기듯 수상레저를 즐기듯 나의 취미활동으로 삼았다. 지금의 광안해수욕장의 입구(남천비치아파트 쪽)로부터 동생말과 어울마당 앞까지의 바다에서 담치를 잡았다. 남천비치아파트의 옛 모습은 불룩한 작은 산이 바다로 뻗어 있었고 바닷가에는 5m 높이의 큰 둑근 바위 하나가 모래사장에 놓여 있었다.

3, 40대 여름철에는 매년 해운대 바다에 10~20번 정도, 이기대 바다에도 15~20번 이상을 가기도 했다.

해운대해수욕장의 안전선 근처에서 육지를 바라보는 경치는 너무 아름다웠다. 청옥 빛의 푸른 바다 흰 모래사장파와 천연색의 가지런한 비치파라솔, 그리고 녹색의 송림, 흰색의 오션호텔 그랜드호텔건물, 그 위의 파아란 하늘을 바라보는 멋을 즐겼다. 황혼녘 파도가 잔잔할 때는 노을에 비쳐 오색 찬연한 색깔의 잔잔한 파도가 수천 개의 꽃 줄무늬를 이루어 잘디잔 파도를 일으키는데 제자리 헤엄을 치면서 그걸 바라보는 재미도 보통이 아니었다.

그즈음 나는 수영 실력 테스트를 하고 싶었다. 35세 여름에는 동백섬 입구의 웨스틴조선호텔 앞에서 안전선을 따라 미포 포구까지 2km를 완주하기로 했다. 그랜드호텔 글로리아호텔 앞을 지나 수영을 하다가 아쿠아리움 앞에 이르자 힘에 부쳐 5분간 휴식을 하고 다시 파라다이스호텔 극동호텔(지금의 엘시티) 앞을 지나 미포 방파제에 도달했다. 어찌나 된지 방파제 독에 누워 숨을 헐떡이던 기억이 떠오른다.

이기대에 가기 위해서는 대연동 못골시장 앞에서 24번 버스를 타고 동국제강(지금의 엘지메트로시티 아파트) 앞에서 내려 쉼자리의 남쪽 산기슭(지금의 이기대 성당)을 올라가야 했다. 쉼자리에는 물가에 갈대와 작은 관목으로 숲을 이루고 있어 쉼자리라 한 것 같다. 쉼자리 포구에는

어선 몇 척이 정박해 있었다. 산길을 올라가다가 오른쪽 이기대는 군사작전지역이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왼쪽으로 가서 백련사로 가는 산길을 오르면 고개가 나오고 고개에서 내려가면 바로 바닷가이다. 지금 그 자리에는 해녀막사가 있다. 그 근처에서 주로 담치를 잡았는데, 어느 날은 한 길 깊이 바다에서 담치 발을 발견하여 많이도 잡았던 적이 있다. 반은 낚시꾼에게 주고 오기도 했다. 또 한 번은 멍게 큰 놈 몇 마리를 잡기도 했다.

36세(1974년)여름에는 오륙도에 가서 담치 잡는 기록을 세우기로 했다.

24번 버스에는 나환자촌(지금의 SK 아파트) 식구들이 몇 타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약(SD)을 몇 달분 탔느냐?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더냐? 효과가 있던가? 같은 질문과 답을 대화로 삼고 있었다. 그들은 눈썹이 없었고 손가락이 한둘 뭉텅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용호동 백운포 고개를 넘어 오륙도 선착장(겸 주차장)에 닿았다.

낚시꾼들은 오륙도 방패섬에서 뽕에돔과 농어를 잡기 위해 출조한다. 낚시꾼들은 방패섬에 4개의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낚시와는 인연이 없어 수영을 그런대로 하기 때문에 담치, 소라, 고동 잡는 것을 일종의 스포츠로 생각하고 있었다.

용호동 승두말 주차장에는 손가락이 반쯤 없는 나환자가 주차관리 인이었다. 솔섬과 붙은 방패섬을 바라보니 50미터는 될 것 같았다. 그런데 물살이 세어 조금 겁이 났다. 바로 앞 5미터 지점에 있는 바위까지 우선 건너가기로 했다.

복장은 수영복, 양발, 목장갑, 비닐과 끈. 바위에 이르러 보니 거기도 담치가 꽤나 있었다. 물살이 세어 좀 기다리는 동안 한 손으로 바위를 잡고 몸은 물에 담그고 한 손으로 담치를 땀다. 어린애의 손바닥만한 담치들이

많았다. 물살이 계속 세어 방패섬에 가는 것은 포기했다. 그런데 잡은 담치를 비닐봉지와 양말 두 짝에 집어넣었다. 이걸 들고 해엄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 끈으로 묶어 허리 양쪽에 차고 해엄을 치니 물살이 올 때보다 더 세어져 몸이 조금 떠내려갔지만 무사히 육지 바위에 닿았다.

집에 도착하여 담치 큰 놈 잡았다고 자랑삼아 보였더니, 아내가 어디서 이런 큰 걸 잡았느냐?고 오륙도에서 잡았지 했다. 당신 죽으려고 환장했소! 다시는 담치 잡지 않는다고 약속하세요! 핀잔만 실컷 들었다.

한 번은 이기대 어울마당 앞 바다에서 해엄을 치는데 해파리 떼가 밀려 오고 있었다. 그 사이를 해엄쳐 옆 바위로 나왔는데 다리가 따금따금하여 나와 보니 별경게 부었다. 화가 나서 몽둥이를 들고 들어가 해파리 떼를 모두 난도질했다. 바로 집으로 왔다가 피부과에 갔다. 일주일 간 피부과를 다녔다.

또 한 번은 이기대 바다에 나갔더니 파도가 너무 세어 그냥 집으로 돌아오려다 한 번이라도 바닷물에 몸을 적시고 싶어 요령껏 바닷가에서 파도를 즐겼는데 갑자기 민둥너울이 일어 내 몸을 바다 쪽으로 끌고 가더니 다시 육지 바위에다 태질을 했다. 양손으로 바위를 잡고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으니 파도는 물러갔다. 왼쪽 손 가운데손가락을 다쳤다. 며칠간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아직도 그 손가락은 약간 굽어진 그대로다.

바다에 갔다 오면 샤워를 하지 않고 바닷물을 몸에 묻힌 채 그대로 자고 그 다음날 샤워를 한다. 바닷물이 끈적끈적하다고들 하는데 나는 기분이 좋을 따름이다.

이제는 나이도 들고 이기대가 도시자연공원이 된 후로 바다에는 못 들어가게 되어서 아예 수영은 포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은 해안 산책로와 장자산을 산책하는 것으로 즐기고 있다.

처음 엘리메트로시티로 이사 와서(2001년 6월)는 쉼자리 포구에 자주 나갔다. 아침 산책길은 포구를 경유했다. 그 다음해 5월인데 어부들이 오륙도에 그물을 쳐놓고 새벽에 나가 고기를 바로 잡아오는데 송어가 큰 놈 세 마리에 일만 원, 메가리(전갱이 작은 놈)는 한 소쿠리에 일만 원, 물꽂(아귀)은 큰 놈 세 마리에 오천 원이었다. 집으로 가지고 와서 장만하여 말려 두었다가 반찬을 해 먹었다.

매일 아침 이기대를 산책하면서 쉼자리 포구를 지나쳤다. 거기에는 스무 명 쯤의 해녀 아줌마들이 장사를 하고 있다. 남편이 모는 배 이름을 따서 등대호 영신호 동산호 등의 간판을 달고 있다. 등산 갈 때도 올 때도 포구를 거치다 보니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어부 김 노인을 알게 되었고 그와 소주를 몇 번 나누기도 했다. 어부 김 노인을 알게 되어 어부의 삶을 소재로 하고 쉼자리 포구를 무대로 한 단편소설 〈어의야 디어라〉(2002년 소설마을 봄호)를 쓰기도 했다.

Ⅰ 강인수 Ⅰ

- 《월간문학》소설 〈밀물〉로 문단 데뷔(1979) • 부산문인협회장 역임(2004~2007)
- 현) 부경대 명예교수 • 수상 부산시 문화상(2000) 한국해양문학상 대상(2008)
- 소설집 7권, 장편 9권, 평론 2권 등 발표

여름 황령산

권 채 영

문현동을 거쳐 황령산을 오른다. 이 산은 남 부산의 축으로 남구와 함께 부산진구, 수영구, 연제구에 물려 있다. 산 들머리에 앉은 돌산공원이 막내 봉우리답다. 자그마니 귀여운 한 여인이 떠오른다. 그 분위기에 맞춰 길 따라 동화의 나라가 펼쳐진다. 흥부와 놀부, 해님 달님, 토끼와 자라, 나무꾼과 선녀에다, 아기 돼지 삼형제, 피노키오, 신데렐라, 백설공주, 성냥팔이 소녀가 다 모였다. 동화 나라 반상회라도 하는 모양이다. 돌산마을은 일찍이 벽화거리를 조성하여 제법 소문이 났다. 마침 한 무리 학생들이 사진기로 동화를 읽는다.

잠시 그림에 빼앗겼던 눈길을 거두고 친구와 남구를 잇는 진남로를 넘는다. 노변에 핀 무궁화가 산뜻하다. 벚꽃 천지 강산에 설 자리를 잃고도 제 자식 바라보는 엄마 같은 얼굴을 하고 섰다. 마치 모자란 애국심을 나무라기보다 도리어 위로라도 하는 듯. 어릴 제 심고 가꾸기를 장려하던 나라꽃이 고작 애국가에나 등장할 만큼 귀해진 신세라니 반갑고도 안타깝다.

산어귀 발뚱기와 풀밭에는 북아메리카에서 왔다는 개망초가 긴 목을 빼고 향수에 젖어 있다. 가끔 지나는 바람을 붙잡고 행여 꿈에 그리운 고향 소식이나 알아보려는 몸짓 하소연이 눈물겹다. 초입에 성성한 백발을 흘날리며 옹기종기 누운 무덤조차 덩달아 애처로움을 자아낸다. 무더기로

자란 ‘띠’ 이삭이 만개해 무덤 속의 넋을 부르는 듯 흰 꽃대를 흔들건만 무덤들은 미동도 않는다. 문득, 초봄에 ‘삐삐(뽕기)’를 뽑아 먹던 때가 생각난다. 여리고 달달하여 함께 맛나게 먹던 그 동무들도 하마 지금쯤 저런 백발일까?

호젓한 오솔길에는 돌멩이들이 구르며 논다. 비 오면 물길이 되는 비탈길 간간이 놓인 돌이나 통나무 층계를 비집고 나온 풀들이 가상하다. 그 숫한 발자국에도 요행히 고개를 치켜들었다. 육중한 발에 언제 짓밟힐지 모를 위험과 탄탄히 다져진 열악한 환경에도 해맑게 웃고 섰으니 얼마나 대견한가. 벚나무 그늘에 새까맣게 깔린 버찌는 흡사 가뭄에 말라죽은 올챙이 떼처럼 애잔함을 보탠다. 옛그제 피었던 벚꽃이 어느새 익어 낙과가 되다니. 이파리조차도 벌써 숨어서 누르게 물들이는 축이나 땅에 나뉘려는 무리가 보인다. 벚나무는 할 일을 이리도 일찍 마치고 싶은 걸까. 소문대로 부지런한 건지, 성미가 급한 건지 모르겠다.

비탈에 올라서면 눈앞은 온통 파란색 천지다. 하늘도 바다도 파랗고, 숲은 더 시퍼렇다. 진초록 소나무는 푸르다 못해 검정빛이 묻어나고, 참나무, 떡갈나무, 오리나무 같은 활엽교목도 넓은 잎을 펼쳐 연녹색 고운 빛을 뽐낸다. 이처럼 다투어 뽐는 싱그러움과 초록빛에 몸도 마음도 온통 퍼렁물이 들 지경이다. 중간 중간 나무가 양보한 터에는 억새와 산딸기가 자리다툼에 한창이고, 동그마니 앓은 무덤가에 한 무더기 백선이 참 곱다.

드디어 일천 층계 위에 앓은 사자봉 전망대. 여기에 서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동으로 금련산과 장산, 해운대 마천루와 광안대교가 한눈에 찬다. 물마루를 따라 남으로 시선을 돌리면 이기대와 태종대, 영도와 남구를 잇는 영남(부산항)대교가 눈에 든다. 서편은 부산 상징탑이 섰던 서면교차로. 예서부터 구봉산과 백양산을 끼고 뻗어나간 콘크리트 숲 끝에는 아스라이 낙동강이 거울처럼 반짝인다. 눈앞 금융단지의 우람한 63빌딩(부산국제금융센터)은 사자봉과 키 재기를 하자며 덤빈다,

이 장엄한 풍경 속에 앓을 다투는 차들, 쫓기듯 허둥거리는 사람들, 요란한 기계음—찢기고 깨지는 날카롭고 둔탁한 소리들—이 뒤엉켜 아비규환이다. 살아 있는 도시, 넘치는 활력이라지만 웬지 전쟁터 같은 살벌함과 두려움이 있다.

산으로 다시 눈을 돌린다. 여태 평화롭기만 해 보이던 숲속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일찌감치 터 잡아 덩치를 키운 장송과 굴참나무는 느긋하게 일광욕을 즐기나 털 자란 오리나무, 자귀나무, 아까시나무와 산딸기, 진달래 같은 관목들은 그 아래서 햇볕 쟁탈로 피 튀기는 싸움판이다. 영국 철학자 스펜서가 주창한 ‘적자생존’에 안간힘을 다한다. 경쟁에서 밀리면 끝장나니까. 그래도 이 싸움은 운치가 있다. 스스로의 힘만 키울 뿐, 결코 주먹다짐은 없다. 반칙도 편법도 모른다. 그러고 보면 이들이 바로 선비요, 신사다.

몇 발짝 더 옮겨 사자봉. 그 아래는 우뚝한 송전탑이 팔 벌려 허수아비 흉내를 내며, 뾰족 머리로 정렬한 편백나무 숲의 열병을 받고 있다. 더 밑은 대동굴, 낙농부락이라 부르던 30년 전 흔적은 간데없고, 성냥갑을 재어 놓은 듯 아파트만 촘촘하다. 건너편에 황금빛 돛은 주인 잃은 슬픔에도 외로이 산잔등을 지키고, 바로 앞 봉긋한 젖무덤 같은 갈미봉 너머에 부산항은 컨테이너들로 부산하고, 오가는 배들은 하얀 연서로 푸른 바다와 속살댄다,

수술 같은 꽃을 뽐내는 자귀나무와 그늘에서 하얗게 빛나는 까치수염 꽃을 뒤로 하고 편백나무 숲에 들면 저녁나절같이 어둑하다. 무성한 잎이 햇빛 가리개가 된다. 걸모습과 달리 아랫도리는 온통 벌거숭이다. 힘줄 선 다리로 발가락에 힘주어 비탈을 움켜잡고 용쓰는 모습이 안쓰럽다. 사철 푸른 숲 자랑도 거저는 아니었구나. 수십 년을 산비탈에 선 채로 버텨내기가 그리 호락호락했을까. 그 와중에도 삼각형 몸매로 몇 부리는

여유는 어디서 오는 걸까? 죽죽 곧게 자란 형상을 빼박은 기품 때문인가.

울창한 숲이 끝나고 바람고개 쉽터. 커피 한 모금에 몸에는 다시 활기가 돈다. 하산 길 배웅은 이별에 자지러지는 매미의 통곡과 임도에 줄지은 가지도, 잎도 온통 초록인 황매화가 휘젓는 손짓이다. 황령산의 울 여름도 이렇게 무르익는다.

Ⅰ 견산 권채영 Ⅰ

• 합천 태생 • 《문장21》신인상(수필, 시조) • 남구 공무원 정년 • 부산문인협회, 남구문인협회, 남강문학회, 황강문학회 회원, 상상동인회장, 《오륙도문학》《문장21》편집장 역임
• 고운문학상(본상), 오륙도시민대상(문화예술분야) 등 • 수필집 『세월 속에 새긴 흔표』외

이기대서 듣는 피리 소리

김새록

이기대 바닷길을 거닐 때였다. 피리를 부는 소리가 들려와 가는 걸음을 멈추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럴 만한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분명 그것은 피리소리였다. 가만히 보니 바위를 때리는 파도가 하얀 물방울이 되어 허공으로 치솟아 오른 수천 개의 은방울들의 환호성이었다. 개선장군처럼 물려온 파도와 갯바위가 서로 만나자 와락 껴안고 스킨십을 하는 사랑의 하모니가 피리소리로 들린 것이다.

바위의 품속으로 안겨드는 하얀 파도도 있다. 그럴 때마다 바람은 물방울과 어울려 일대 춤사위를 부추긴다. 바위 끝으로 성큼 치솟아 오르는 빗살무늬 같은 포말은 무지개 같은 곡예를 망사 저쪽에서 연출한다. 햇빛이 파도의 윤무에 덩달아 조명을 깬다. 순간 무지개가 허공을 차지한다.

분위기를 돋우려는 듯 젊은 선남선녀가 경쾌한 리듬으로 춤사위를 곁들이는 장관이 눈에 떠오른다. 바다를 연인처럼 지그시 보고 있는 장자산은 늙름한 남성상이다. 장엄한 관악에 맞추어 피리를 부는 듯 아늑한 곡조가 연상되는 웅박한 산이다. 산자락 아래 바다는, 또 다른 푸른 소매를 나누끼며 하얀 치아를 드러내고 차르르 웃어대는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이다. 한판 신들린 놀이판은 보는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어느 날은 이기대二妓臺 산책길에서 두 기녀妓女를 만나는 환상이 뜬다. 조금 전에 들던 휘파람소리는 두 기녀가 목청껏 뿜아 올리던 육자배기 가락인지도 모른다. 어느 대목에서는 피를 토하는 듯하고 또 어느 대목에서는 자지러지게 허리를 꺾는다. 아슬아슬한 낭떠러지를 붙잡고 목청껏 울부짖는 파도소리가 된 기녀인지도 모른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깡마른 나무 삭정이가 툭 풀땀불에 떨어진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삭정이가 떨어진 자리를 살핀다. 영화 장면의 변화처럼 이번에는 납작하게 엎드린 마른 풀잎이 시선을 붙잡는다. 갯바람에 몸을 흔들면서 나를 빤히 보는 것 같다. 파도소리에만 정신을 팔지 말라고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마른 풀잎은 그대로 언덕에 퍼져 있었다.

삭정이를 소재로 한 그림을 생각하기도 한다. 한 생을 즐기는 갈대의 춤사위가 소복을 입고 한풀이를 하는 영상이 스쳐간다.

어떤 풀땀불은 낯설다. 엉클어진 건초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을 풀땀불이 알면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데 이름이 목에 탁 걸리는 것도 있다. 몰라줘도 개의치 않고 바닷바람에 흥을 돋운다. 미세한 울림이다. 지금은 녹슨 칼날처럼 그냥 엎드린 풀잎이지만 만지면 살을 섬벅 베기라도 할 듯 시퍼런 청춘의 한 때도 있었다. 찬란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순순히 받아들인 자세가 초연하여 좋다. 하찮은 풀이라고 업신여길 게 아니다. 자리를 탐내며 나만이 적임자라고 억지를 부리지 않는 비움의 초연한 자세를 배운다. 그 빈자리에 다시 새싹이 돋아나 싹을 틔우고 장자산과 이기대 바다가 어우러진 푸른 물결의 노래로 우렁чал 것이다.

길목에 서 있는 소나무가 나에게로 가지를 뻗어오는 듯하다. 소나무의 정기를 느낀다.

부산 남구 용호동 이기대. 내 안에서 또 다른 파도가 쿵 자지러지는 소리를 한다.

Ⅰ 김새록 Ⅰ

- 《수필과 비평》 수필(2004), 《계간문예》 시(2017) 등단, 《부산가톨릭문학》 편집주간, 《문학도시》 편집위원, 부산수필문협 부회장 • 수상 부산가톨릭문학상, 부산문학상 등
- 수필집 현대수필가 100인 선집 『지구본을 굴리다』 외 2권, 시집 『빛, SNS를 전승하다』

블루 시티

김 정 화

골목이 엉킨다. 판잣집들이 딱딱딱 옆드려있는 경사진 좁은 길을 오른다. 10번 마을버스가 지나가는 산자락, 영화 '마더'가 촬영된 장소, 무덤 80여 기가 함께 자리한 달동네. 푸른 물탱크와 푸른 슬레이트 지붕들이 육지의 바다를 이루었다. 세월이 멈춘 도심 속의 돌산마을이다.

속칭 '문현동 안동네'로 알려진 이곳 '돌산마을'은 문현동에서 전포동으로 연결되는 진남로 좌측 갈마산의 고지대에 있다. 그런데 여러 해 전, 이 마을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칙칙한 담벼락에 사철 그림 꽃이 피어났다. 금가고 낡은 시멘트 벽은 캔버스가 되었고 이름도 모르던 골목 동네는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벽화 마을로 탈바꿈한 것이다.

벽 화가를 자청한 봉사자들이 담벼락 그림 50여 점을 탄생시켰다. 그들이 쏟아 부은 젊은 열정이 낡은 마을에 새 기운을 불어넣었다. '문현동'이란 마을 이름은 '문 너머'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한다. 예로부터 부산의 사립문 역할을 하던 동네인 만큼 '문 너머에 있는 희망'을 주제로 벽화를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벽화들은 저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와 열기구, 바닷속의 풍경, 자전거와 고양이, 민들레 꽃씨를 날리는 소녀.... 돌벽 위에서 고래가 헤엄치고 갈매기가 날고 부엉이가 밤을 밝힌다. 해맑게 뛰노는 아이들도 그림 속으로 들어갔다. 마을 입구에 그려진 바구니 속 한 아름 장미꽃은

주민들의 소박한 꿈을 담아낸 것일 게다. 아이들과 천사들이 달 위에서 잠자는 그림은 이곳 아이들의 먼 이상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 벽화 한 점 한 점 속에 그들의 희망과 순박한 돌산마을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이러한 벽화는 빈한한 마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 준다. 첫 벽화 작업을 할 때 쓸데없는 짓이라며 신통찮은 반응을 보이던 주민들도 골목 분위기가 점점 화사해지자 스스로 거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직접 벽화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몇몇 주민은 서툰 붓질로 두어 점 꽃그림을 그려내었다. 마을 옹벽에 꽃 문신들이 새겨지자 골목길을 돌던 동네 아이들의 발길은 꽃잎마냥 가벼워졌다.

하지만 유독 눈길이 닿는 곳이 있다. 마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무덤들이다. 원래 이곳은 공동묘지였는데 무덤 사이에 집들이 하나 둘 들어서게 되었다. 삼 사십여 년 전,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곳에 빈민 노동자들이 보금자리를 틀었다. 불량 주택 철거민들이 판잣집을 짓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봉분 앞에 부엌문이 갖추어지고, 무덤을 에워싼 마당이 마련되고, 묘지 사이로 동네 평상이 놓이고, 무덤 주위에 텃밭이 만들어졌다.

아침에 일어서면 정수리가 천장에 닿을 듯한 낮은 집들과 담장보다 낮은 무덤들도 그들에게는 더없이 든든한 공간이다. 이곳이 아니면 어디에 삶과 죽음이 같은 자리에 존재할까. 무덤 옆에 둘러앉아 담소하는 노인들의 표정마저 편안하기 이를 데 없다. 밤이면 무섭지 않으냐는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이 낮설다.

“무덤이 뭐시 무섭노. 저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 아이가.”

담뱃대를 입에 문 노인 한 분이 측은한 듯 나를 올려다본다. 그러고 보니 싱그런 잔디를 덮고 있는 무덤만큼 편안한 곳도 없겠다 싶다. 벽화 그림에 무덤이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닐까. 이제는 담장 벽화가 그려진 마을 앞에 돌산공원도 생겼다. 집, 공원, 무덤, 벽화가 그들의 삶을 이어주는

끈이라고 여겨진다.

마을을 휘도는 바람을 따라 발길을 옮겨 본다. 사시절 풍경이 달라지듯이 이곳에 부는 바람의 눈짓도 계절마다 다르다. 벚나무 붉은 잎을 타고 흐르던 가을바람이 겨울 마른 땅에 고였다가 봄이면 피창 앞 화분의 마늘 순을 흔들고, 여름이 오면 뜨거운 기운으로 묘비석 위에 내려앉을 게다. 바람이 멈춘 비닐 가리개 쪽창에서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온다. 바람은 다시 집을 돌고 무덤을 돌고 돌 벽을 돌아 벽화 마을을 빠져나온다.

어둑살이 골목 동네를 물들인다. 손으로 만든 그림자 새가 진짜 새로 바뀌어 하늘을 오르는 벽화 앞에 서 본다. 내일 아침에는 파랑새 되어 다시 날아오기를.... 판잣집 푸른 지붕 너머로 고층 아파트 불빛이 뻗뻗하다.

* '벽화마을'로 한때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던 부산 남구 돌산마을은 2020년 6월부터 재개발 공사로 주민 이주와 함께 건물 철거가 시작되었다.

Ⅰ 김정화 Ⅰ

• 《수필과비평》등단(2006), 광남일보신춘문에 문학평론 당선(2015) • 월간 《문학도시》편집장 역임. 국제신문 칼럼 외부필진 • 신곡문학상, 천강문학상, 부산문학상, 오륙도문학상 대상 외
• 수필집 『하얀 낙타』 등 5권, 문학평론집 『현대수필의 아포리아』

오륙귀범五六歸帆처럼

김 중 화

어느 선비의 사미인곡思美人曲처럼 그토록 조국을 동경하며 한일 관련 14책을 저술하였지만,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 동경 근처의 사이타마현의 공동묘지에 말없이 누워계신 백부를 떠올려 본다. 백부 대신 저술한 책이라도 직접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돌이켜보니 2006년 여름에 백부의 묘소에 들린 후 지금까지 누나에게 그 흔한 전화 한 통 하지 않은 죄송함 때문이리라. 나 자신이 원망스럽다. 게다가 국내 분위기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니 나에게도 일본은 가깝고도 먼 곳이 되어 버렸다.

지난해 여름부터 가으내 생각하다가 자주 만나는 '부산문학' 간사와 함께 의기투합하여 물 건너가서 구하기 힘든 4종의 책을 찾기 위해 누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호혈유호자虎穴有虎子라!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는 옛말이 떠올리며.

그러니 마음은 벌써 동경의 그 집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사는 집은 옛날에 봤던 그곳인지? 혹시 이사는 안 했는지? 아니 백모, 누나 두 분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지? 너무 오래되어 나를 알아볼 수 있겠는지 등등 여러 가지 의문을 던졌다. 그런데 13년 전 그 집이라면, 다시 만날 수 있는 행운이 오지 않았는가!

출발 일정은 비행기 예약과 함께 정해졌다. 2019년 11월 20일. 운 좋게도 요즘 일본행 비행기 값이 싸서 좋았고, 호텔 숙박료도 마찬가지다.

드디어 예정일 새벽, 가깝고도 먼 곳을 향하여 보물찾기가 시작되었다. 마침 유학 마치고 귀국한 딸이 엄마와 함께 차를 운전하여 김해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다. 둘이는 잔뜩 들뜬 기분으로 동경의 ‘하네다 공항’에 안착했다. 쇠뿔도 단김에 빼듯 바로 누나 덕인 ‘문경구文京區 천석千石’ 가까이 가는 전철을 탔다. 13년 전을 마지막으로 두 번 가 본 그 집에 지금도 살고 계시리라 굳게 믿으며, JR 야마노테선 스가모역 하차, 폰 내비에 주소를 입력하여 큰길 따라 그리고 횡단보도를 넘어서 약 10분 넘게 걸었다. 처음엔 그 집을 지나쳤다. 그런데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다. 다시 뒤돌아 천천히 걸으며 찾아보니 ‘岩本(이와모토)’란 조그만 사각 문패가 건물 입구 기둥 안벽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백모의 성씨다. 번지도 그대로. 상냥하고 다정스럽던 백모가 반갑게 맞아 주는 듯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하면서, 너무 반갑고 기뻐다. ‘아직 여기 사시는구나!’ 하며 감격하고 말았다.

오후 1시 25분쯤 되었다. 택에 계실지 모르지만 문패 밑 초인종을 약간 떨리는 손으로 눌렀다. “모시모시! 와타시가 칸꼬꾸까라~”로 말을 걸었다. 그런데 “요쿠 와까리마센네.”라는 말이 들렸다. 내 이름을 두 번 말해도, 순간 난감했다” 그러면 문을 열고 얼굴을 보며 확인해 주면 좋겠다”고 간청했다. 문은 ‘탁!’ 소리를 내며 열렸다. 우리는 슬그머니 문 안으로 들어섰다. 2층 계단으로 내려와 내 얼굴을 반히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옆의 응접 의자를 정리하며 앉으라고 시능했다. 오래 전 백부와 누나로부터 받은 편지 등을 꺼내어 보이며 나를 확인시켰다. 그랬더니 얼굴이 그때와 좀 다르다고 했다. 그간 소식도 서로 없었으니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 “스미마셴!”하면서 용서를 빌었다. 나도 마지막 봤을 때를 생각하니, 누나 또한 나이가 많이 든 노파로 변해 있었고, 길에서 마주친대도 지나칠 것 같았다. 1층 내부를 훑어보니, 아직 백모의 이름인 ‘후지에藤江’의 첫 자를 넣은 ‘藤理容室’이란 상호와 함께 영업하던 시설

그대로였다. 그러나 정리되지 않고 점포도 닫혀 있으니 운영하지 않고 지난 세월이 몇 년 되어 보였다. 선물로 가져간 한국 김, 유명한 장인의 옷칠된 찻잔 2개와 차 판 세트를 내밀었더니 좋아하며 용도를 물어보았다. 백모는 2013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참 상냥하고 좋은 분으로 기억되는데 이 또한 죄송스러웠다.

대학 재직 중에는 여념이 없이 지냈지만, 이젠 여유를 가지며 백부의 저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서두를 꺼내었다. 찾아본 백부의 저서 14책을 근무했던 대학 도서관에 구입해 놓도록 한 일. 그러나 오래되고 절판된 것으로 보이는 4책(朴烈, 日本人 妻와 살다 외 2책)은 구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랬느냐.’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실은 연락 없이 와서 미안하지만, 그 4책을 찾으려 왔는데 혹 여분이 있으면 받고 싶고” 그리고 조카로서 “백부의 책을 몇 책이라도 한글로 번역하여 그 숭고한 뜻을 한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부산문학’의 간사와 함께 왔으며 동행인을 소개했다. 그랬더니 거실의 2층으로 황급히 올라가더니 4책의 제목대로 책마다 1권 또는 2, 3권씩 가지고 내려왔다. 우리 둘은 눈을 번쩍이며 매우 기뻐했다. 응접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누님과 나란히 웃으며 사진을 번갈아 찍었다.

나는 신이 나서 이왕 여기까지 왔고 만났으니 염치불문하고 “다른 10책들도 여분을 줄 수 없겠는가?”하며 청했다. 그랬더니 망설이지 않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시더니 한참 만에 책을 한 아름씩 해서 3번 정도 오르내리며 가져왔다. 허리가 약간 꼬부라져 있어서 미안하고 마음 같으면 위로 올라가 함께 가져오고 싶었는데 차마 말을 못했다. 실례일 것 같아서, 그러면서 가져가기 힘들면 부치겠다고. “두 사람의 가방에 넣으면 가져갈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빨리 보고 싶기도 하고, 아무튼 참 고마웠다. 모두 테이블 위에 진열해 놓고 함께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그렇게 해서 약 3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고 오후 4시 30분이나 되었지만, 점심도 거른 채 천군만마千軍萬馬를 얻은 듯 의기양양 해하며 JR 전철을 타고 아키하바라역에서 하차한 후, 택시를 타고 예약된 료고쿠兩國 뷰 호텔 숙소에서 여장을 풀었다.

숙소에서 책을 세어보니 모두 30권이었고 책 제목마다 어떤 책은 1권뿐이고 어떤 책은 3권으로 평균 2권 정도였다. 찾고 구하니 문이 열렸고, 씨 뿌려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저 던져 주었다. ‘이것이 어찌면 혈육의 정이구나!’ 싶었다.

부산에 와서 누나로부터 책을 받은 그 날의 느낌을 생각하며 책의 안팎을 살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朴烈박렬’ 등의 몇몇 책 안에는 이런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当家保存用(당가보존용)’, ‘秋子私用(추자사용)’이라고 적혀있었다. 내 느낌이 맞았다. 소장했던 책을 나에게 다 준 것이다.

누나는 백부가 2002년 돌아가시고 17년이 지났고, 엄마인 백모가 2013년에 돌아가셨으니 과거를 회상하며 혼자서 슬프고 외롭게 6년을 살아온 것이라. ‘이용실’도 혼자 힘으로 할 의욕이 없고 몸도 마음도 아팠을 것이다. 반쪽의 한국인과 반쪽의 일본인으로 살고 있으니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누구를 탓하겠는가? 그동안 백부가 저술한 책들을 부모 보듯 했을 텐데! 그마저 나에게 맡겼으니 지금은 어떤 심정으로 계시는지?

한편으로는 나이 들면서 영육이 쇠잔하여 오히려 이 책들이 무거운 짐으로도 생각했을 것도 같다. 그러니 사촌 동생인 나에게 몽땅 넘겨버린 것이 아닐까? 그러면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자신의 삶을 기록한 ‘일본인 처와 살다(1979)’가 고향인 한국에서 새롭게 조명되어 그 삶의 흔적이나마 재현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부산 도착하여 바로 동경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 12장을 동봉하고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냈다. ‘누님, 이번에 저를 믿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연락드리겠으니, 건강하게 잘 계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또한 ‘성탄절과 새해를 맞으며 즐겁고 기쁘게 사시고, 다시 만나 보자.’는 새해 인사장도 보냈다. 외롭지 않게.

이제 할 일은 분명했다. 가깝고도 멀게만 느껴졌던 그곳에서 얻은 책들이 있지 않는가? 조국을 향한 그 애절한 뜻이 다시 이 땅에 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그래서 ‘釜山文學’의 지인들과 함께 연구모임(가칭, 제일 한국인 김일면 연구소)을 만들어 타국 일본에서 좌고우면左顧右盼하지 않고 외쳤던 그 역사적 기록들을 보존하여, 읽고 번역하며 연구하고자 하는 뜻을 가져본다. 이미 국내 몇몇 연구자들은 ‘皇國의 軍隊와 朝鮮人 慰安婦(김일면, 1976)’가 한국인 최초의 위안부 기록이라고 한다.

사자는 말이 없지만, 80년 전 현해탄을 건널 때 오륙도를 바라보며 다짐했던 것들이 책이 되어 내가 사는 이곳으로 돌아왔다. 마치 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 만선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입항하는 오륙귀범五六歸帆처럼.

그러니 지금은 조국 대한민국에서 그 책들의 내용을 통하여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찾음으로써, 한일 관계의 실상을 증언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본다.

Ⅰ 김종화 Ⅰ

- 경남 함안 출생 • 부산대학교 대학원(공학박사), 부경대학교 교수(황조근정훈장 수훈)
- 현)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및 재일한국인 평론가 김일면 연구소장
- 부산문학 수필 등단(나가사키와 카스텔라, 2019)

평화공원

류수인

각종 수생물들이 어울려 살고 있는 수로가 있다. 어족들이 떼를 지어 수초 속을 헤엄쳐 다니기도 하고 가끔은 해오라기도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날아들어 갯버들 가지에 착 착취하기도 하는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기도 한다.

까치들의 낙원이기도 한 평화공원 유엔묘지가 곁에 있어 평화를 상징하는 이름이 부쳐졌겠지만 하여튼 평화라는 상징성 있는 이름도 띄어나 정감이 간다. 도심 한 복판에 이런 공원을 끼고 있는 남구 주민들에게는 축복이고 나 개인으로는 활력을 찾는 아침 운동 길이 거기에 있어 행복하다

얼마 전 이 평화공원에서 가을을 맞이하여 해년 열리는 행사로 국화꽃 축제가 열렸다. 시점에 맞춰 시민과 함께하는 시 낭송도 열렸다.

다양한 색깔의 국화꽃들이 다양한 모양을 갖추고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가 하면 시인들의 시 낭송은 음향기를 타고 감상에 젖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야말로 꽃과 시가 잘 어우러진 한 마당이였다.

묵묵히 시 감상에 젖어 있던 주민이 시 낭송을 자청하기도 하고 어린 학생도 한 몫 끼어들어 시 낭송의 열기를 부추기기도 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추구한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것을 충족시키면 된다. 평화공원에서 문화적인 기획이 간간히 이루어진다면 평화공원이라는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지 않을까 가끔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을 때 보았던 열린 문화를 떠올려 보면서 생각해 본 것이다. 이런저런 것들을 이유로 들어 제재가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들의 자유분방한 문화는 딱히 갈 곳 없는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기도 하거니와 다양한 예능을 가진 사람들의 끼 발상지로도 넉넉해 보였다.

옛 선조들의 끼를 이어 받은 우리 민족도 주체 못하는 풍류와 끼가 넘쳐난다.

그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열린 무대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자연과 더불어 시가 흐르고 예술이 함께 한다면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심신을 어루만져 준다면 좀 더 넉넉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Ⅰ 류수인 Ⅰ

• 《한국시》등단(1996) • 한국문인협회 서정문학 연구위원회 위원 • 부산 문인협회 재무이사, 부산 시인협회 이사, 오륙도 낭송문학회 회장 • 수상 〈한국시 문학대상〉, 〈노산문학상〉, 〈대한민국 스타예술 시부문 대상〉 외 다수 • 시집 『그리움도 재산이다』 외 8권 출간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엄 명 자

나는 바다 옆에서 산다. 충청도 청주고을에서 항구도시 부산으로 시집왔다. 청주는 물 맑고 산천초목이 수려한 아름다운 고장이나 바다가 없다. 그러나 부산은 볼거리 먹거리 신기한 것이 많은, 어디를 가도 왁자지껄한 바다의 도시다. 청주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조용하고 항상 막 떠오르는 해를 보듯 말이 없는 곳이다. 그러나 부산은 패기가 넘치고 활동적이며 생산적이고 투박한 말씨 속에 담백 정이 있는 곳이다.

부산과 청주는 먹는 것부터 다르다. 충청도 사람은 음식을 싱겁게 먹는데 비해 경상도 사람은 짜고 맵게 먹는다. 그래서인지 고향 사람들은 성격이 느리고 온순한데 비해 여기는 말씨가 팍팍하고 화끈하다. 어떻게 보면 상통하는 점이 있다. 온순함 속에 정이 있듯이 또한 투박함 속에 역시 정이 많다. 극과 극은 같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두 고장은 잘 어울린다. 궁합이 맞는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나는 시집을 잘 온 것 같다. 60년대 내가 시집와서 처음으로 광안리 바다로 놀러간 일이 있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 무엇을 먹고 있는데, 그것이 껌질은 빨간 가죽 같은데 오목 볼록하고 그 속에 든 것은 분홍빛을 띠고 물렁하게 보였다. 그것을 고추장에 찍어 입안에 넣는 것이 아닌가? 나는 마치 야만인들을 보듯 얼굴을 찡그렸다. 나중에 안 일인데 그것이 멍게였다. 그 멍게를 안주 삼아 소주를 걸치면 아주 맛이 좋으면서 나보고 맛을 보라고 주위에서 권하여 나는 엉겁결에 한 입 넣었다가

이상야릇한 맛에 기겁을 하고 뱉어버렸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없어서 못 먹을 정도고 입맛 없을 때 한 접시 먹으면 달아난 입맛이 돋는다.

새벽에 일어나 광안리 바닷가에 가면 어부들이 펄펄뛰는 싱싱한 고기들을 팔고 있다. 광안리 앞바다는 조개들의 산실이다. 캐고 캐어도 풍성한 조개의 보고이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낚싯대를 드리우고 강태공을 닮아가는 모습은 펍 인상적이다.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노라면 흰 갈매기들 바닷물에 날개를 치고 멀리멀리 날아가는 모습에 내 마음도 뚱뚱 떠 하늘에 올라 구름과 함께 멀리멀리 떠나간다.

남천비치에 살다가 메트로시티로 이사 와 보니 산이 있고 바다가 가까이 있는 점은 매한가지다, 이렇게 좋은 곳이 바로 남구이다. 사계절을 느끼게 해주는 장자산은 지친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 어지러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준다. 산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있는 자에게 겸손을 가르쳐 준다. 또한 바쁘게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쉼을 준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인내하며 산을 올랐을 때의 환희, 산 위에 오른 자는 반드시 내려와야 한다는 진리는 우리 인생에 깊은 교훈을 준다. 요즘 장자산엘 오르면 코스모스가 나를 보고 한들거리며 반갑게 맞아 준다. 시원한 가을바람은 첫사랑의 짜릿한 정감을 온몸으로 느끼게 한다.

남구가 요즘 화려하게 변신하고 있다. 특히 이기대는 하루가 다르게 새 단장을 하며 시민 휴식 공간으로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다. 가까이 보이는 광안대교는 현수교의 불빛이 휘황찬란하다.

이기대 바다에 쏟아지는 수많은 별들을 보라. 강박한 세상살이를 속 시원히 풀어주는 아름다운 쇼가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 젊은이들은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내일의 비전을 속삭이며 약속하고 있다. 산과 바다를 안고 사는 나는 누구보다도 내가 사는 이 남구를 자랑한다.

해운대 신시가지로 이사 가는 이웃을 말린 적이 있는데, 요즘엔 바다가 가깝고 푸른 나무들로 아름다운 정원을 이룬 LG 메트로시티로 이사 오라고 부추긴다. 사계절 화려하게 옷을 갈아입는 장자산과 이기대의 아름다움을 도회지 한복판에서 볼 수 있는 이 천혜의 남구를 떠나지 말라고 옷소매를 잡는다.

우리 동네 남구는 희망이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산과 바다가 화려해 지고 있다.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듯 여운을 길게 드리우는 장자산과 쓴살같이 달려와 철썩철썩 깨어지는 파도 위에 떠 있는 이기대가 남구를 더욱 아름답게 수놓고 있다.

산과 바다를 안고 사는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하다. 나는 내가 사는 이 남구를 누구보다 사랑한다. 나는 경상도로 시집온 것이 일생일대에 가장 잘한 일이고, 살기 좋은 동네 메트로시티를 주거지로 택한 것이 또 한 번 잘한 일이다.

ㅣ 엄명자 ㅣ

- 《예술세계》 신인상 수필 등단(1996) • 전국수필문학공모 대상 수상
- 수필집 『아버지의 세월』 『옛날은 가고 없어도』

감만동 학당

윤 미 영

진홍빛 옷음꽃이 풍경화가 되는 곳이 있다. 주택들이 오밀조밀한 골목을 돌다 보면 감만동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양지골 행복학습센터’이다.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주민들 누구나 학습에 참여하여 배움을 나누는 사랑방인 셈이다. 그곳에 행복 학습 매니저이자 강사인 친구를 만나러 갔다.

계단을 오르는 벽마다 천진스런 동심이 그림 속에서 웃는다. 보는 이도 절로 웃음이 난다. 교실로 들어서니 친구가 반갑게 맞이해 준다. 깔끔한 교실에는 이십여 개의 책상과 의자가 학생들을 기다린다. 오후 한 시가 다가오자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학생들은 예순, 일흔 심지어 여든 이상의 어머니들이다. 그동안 자식을 키우느라 바빠서 학습 시기를 놓쳤거나, 못다 한 공부에 미련을 가진 늦깎이 한글반이다.

어머니들은 수줍은 풀꽃처럼 웃으신다. 수업 오는 날에는 씨줄과 날줄처럼 아로새겨진 얼굴의 주름살이 퍼진다고 한다. 교실 문턱에서부터 친구들의 안부를 묻느라 시끌벅적하다. 삶의 모습이 다르고 생각은 달라도 마냥 철없는 소녀들 같다. 자그마한 키에 마스크를 한 어머니가 교실 문을 들어선다. 의자에 앉기 전에 가방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낸다. 영감님 생신이라 떡을 했는데 가져왔다고 하자 선생님은 쉬는 시간에 나누어 먹자며 받아 둔다.

선생님이 낭랑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넨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죠?” 라고 하자 빨간 스웨터를 입은 어머니가 갑자기 말문을 가로막는다.

“근데 연필깎이는 어디 팔아요, 선생님?”

영뚱한 질문에 분위기는 묘해진다. 앞뒤로 앉은 분들도 수군거리자 노란 조끼를 입은 어머니의 목청이 커진다.

“밑에 문구점에 가면 있는데, 와 선생님한테 지금 물어 보냐.”고 핀잔을 주자 예기치 않게 수다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꼭 떠들썩한 초등학교 교실 같다. 선생님이 교탁을 가볍게 탁탁 두드린다.

“어머니들 오늘 여섯 분이 오셔서 오בות한테 다른 분들은 절에 가셨나요?”라는 말이 끝나자 빨간 스웨터 어머니가 선생님 여섯 명이 아니고 육십 명이나 왔어요. 라는 말에 모두들 웃었다. 빈틈만 생기면 이내 수다로 이어지는 교실이다. 동짓날 바깥 날씨는 아랑곳없이 교실 안은 열기로 차오른다.

수업이 이어진다. 지난 시간에 배운 훈민정음이 기억나는지 질문을 해 보는데, 어머니들은 처음 듣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순간 조용해진다. 느닷없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 못한 아이들처럼 보인다. 선생님은 한글의 구조를 설명한다. 아들인 자음과 어머니인 모음이 만나서 글자가 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한다.

“그래, 맞아 맞아, 아들에겐 애미가 있어야지.....”라며 맞장구치는 부챗살처럼 펼쳐지는 웃음 속에 모성이 꿈틀거린다.

공부에는 늘 새롭고 호기심 가득한 마음들이 있다. 빠듯한 살림에 식구들 생일이며 제사며 기억할 것이 얼마나 많았던 외유내강의 세월이었겠는가. 이제는 기억의 창고도 꽉 차 버린 탓일까. 머릿속에 잘

넣어두라고, 치매 예방이 된다고 강조를 하지만 얼마나 새겨질지 모른 채 그저 이 자리, 이 시간이 즐겁고 좋은 어머니들이다.

선생님이 칠판에 자음과 모음을 써 놓고 설명을 하는 이곳은 ‘감만동 학당’이다. 조금 후 따라 써 보라고 하자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두 번째 줄에 앉은 곱슬머리 어머니만 따라서 쓰고 있다. 옆 짝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문자 자음을 먼저 쓰고 모음을 따라 쓰면 된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계속 글씨를 쓰신다. 글자를 쓰다가 틀렸는지 지우개로 지우면서 말을 계속한다. “자음을 쓰고 모음 쓰면 된다니까...” 옆 짝이 미동도 없는 걸 보니 이해를 못 한 모양이다. 자음과 모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눈빛이다.

오 분 간 쉬는 시간이다. 여학생들의 점심시간처럼 각자 가져온 간식들을 가방에서 꺼낸다.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이었을까. 떡이랑 따뜻한 차를 나누어 마시면서 수다는 본격적으로 이어진다. 내가 다가가자 “우리 선생님의 목소리가 딸내미 목소리보다 더 반갑다.”라고 말하는 빨간 스웨터 어머니는 선생님 자랑을 이어간다.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친구가 자랑스러웠다.

다시 수업이 시작되었다. 절복을 입은 어머니가 문을 뚫어 열었다. 바빠 오셨는지 숨을 헐떡이는 어머니께 선생님은 늦게라도 오셔서 고맙다고 앉으라고 권한다. 와 이리 늦게 왔냐며 떡 할머니가 대뜸 혼을 내자 마스크 어머니도 한마디 거든다. 마을버스가 빨리 안 와서 늦었다고 미안해하며 가방에서 달력을 꺼낸다. 마을버스가 늦게 오긴 한다면 서로 마음으로 거든다. 함께 이해하고 감싸주는 늦깎이 반 친구의 우정이었다. 선생님은 조용히 미소만 짓는다.

어머니들이 지루해질 무렵 선생님은 ‘보약 같은 친구’ 노래의 운을 띄운다. 익숙한 노래에 손뼉을 치며 신이 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다. 어느 부분부터 돌림노래가 되었다. 강물이 같은 속도로 흐르지 않듯 어머니들의 노래도 각자의 인생 가락대로 너울거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자와 가사는 맞지 않지만 열심히 따라 부르신다. 어머니들은 노랫말 중에 '보약 같은 친구가 자식보다 돈보다 더 좋다'라는 부분에서는 옆에 앉은 짝과 어깨를 보듬으며 힘내라고 위로를 한다. 이번에 선생님이 오른손 엄지를 세우며 “당신 멋져!”라고 선창을 하니 어머니들도 엄지를 세운다. 서로의 삶을 위로하는 ‘힐링’이다. 당신 멋져는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저주면서 살자’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어머니들은 그간 삶의 풍파 속에서 힘들었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듯 선생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웃고 떠들던 교실은 걱정 근심 없는 어머니들만의 영토이다. 수업시간이 끝났다. 이제는 그늘에 앉아 서로 어루만져주며 주름마져 퍼지는 시간이다. 모두들 주섬주섬 펼쳐 놓은 책과 공책과 연필을 가방에 넣으신다. 내 거, 네 거 상관없이 서로의 외투를 챙겨 주면서도 훈훈한 작별 수다가 이어진다. 며칠 후 볼 때까지 아프지 말고 밥도 잘 챙겨 먹으라며 교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워 보인다.

잠시 후, 한 어머니가 다시 들어오신다.

“선생님 이거...”하며 수줍게 내민 것은 크리스마스 카드였다. “고마운 선생님, 사랑하는 선생님,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세요.” 삐뚤빼뚤하지만 또박또박 적은 글씨에 산타할아버지도 웃고 있다. 어머니는 연서를 쓰듯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았으리라.

감만동 학당에는 양귀비도 부럽지 않은 웃음꽃이 전해 주는 꽃말이 있다.

“당신 멋져!”

ㅣ 윤미영 ㅣ

• 《수필과 비평》 등단(2000) • 부산문인협회, 부산수필문인협회, 부경문인협회 • 수필집 『틈새비밀』

소풍 가는 날

이 만 호

밤잠을 설쳤다. 내일이 기다려져 잠이 오지 않았다. 초등학교 때 가까운 산과 들에 소풍 가는 날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 가벼운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다. 집결 시간은 아홉시 반이며, 약속 장소는 남구 이기대 입구에 있는 용호복지관 앞이다.

집결 시간보다 조금 앞서 도착하니 많은 회원이 모여 있었다. 잘 지냈느냐는 반가움의 표시로 인사를 나누며 악수도 했다. 방금 떡방앗간에서 갖고 온 뜨끈뜨끈한 백설기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준비에 신경을 쓴 집행부의 고마운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떡을 받아 배낭에 넣었다.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기도 하였지만 집을 나설 때 “소풍 잘 다녀오세요.”라는 아내의 말소리가 귓전을 스쳐 아내에게 떡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였다.

모여든 회원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산행이 시작되었다. 총 참여 회원은 스무 명 정도 되었다. 산행하는 팀과 산행을 하지 않는 팀으로 나뉘어졌다.

나는 허리가 아파 보행에 지장이 있지만, 오늘은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산행을 하는 쪽으로 들어가 등산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이기대의 등산은 십여 차례 했었다. 공직을 함께 퇴직한 동갑내기 셋이서 매주 수요일 열 시에 만나 산행을 했다.

제일 많이 등산한 곳이 금정산이며, 두 번째가 이기대이다. 다음으로 백양산, 황령산, 구덕산, 물운대 등으로 일 년 반 동안 부산의 근교산은 거의 다 가보았다. 그러나 오늘 이기대 이 등산로는 초행인 것 같다. 우리 셋은 주로 해안길로 다녔기 때문이다.

셋이 갈 때 어떤 날은 이기대 입구에서 오륙도 SK뷰 아파트 쪽으로, 다른 날은 오륙도 SK뷰 아파트에서 이기대 입구 쪽으로 걸었다. 바다의 싱그러운 내음과 숲속의 새소리, 맑은 공기는 우리들의 마음을 살찌우는 기회가 되었다.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기대는 장산봉이 바다와 닿는 동쪽의 바닷가로 행정구역상 용호3동에 속한다. 기묘한 바위 절벽과 나무들, 바다와 어우러진 멋진 풍경을 가진 곳이라 예부터 선비들이 풍류를 즐겼던 곳이다.

옛날에는 지형이 험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기에는 위험하므로 배를 타고 바다에서 그 경치를 즐길 수 있었다고 한다. 이기대 해안의 절벽에는 지나가는 배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듯 바다를 바라보고 서있는 돌부처 모습의 바위가 있다.

한때 이곳은 한국전쟁 이후 군대의 작전지역이었기 때문에 출입이 금지되었다가 1993년부터 민간인에게 개방되었다. 1999년에 이기대 해안 바위에 선사시대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이후 부산 남구청에서 이기대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기대라는 이름은 《동래부영지》에 나타나는데, 좌수영에서 남쪽으로 15리에 두 기생의 무덤이 있어서 이를 근거로 하여 이기대라고 부른다고 한다. 또한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수영성을 함락시키고는 부근의 경치 좋은 곳을 찾아 잔치를 열었는데, 그때 수영의 의로운 기녀가 차청해서 그 잔치에 참석해 술에 취한 왜장을 안고 물속에 떨어져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의기대’라고도 부른다고 한다.

등산로에 접어들어 얼마쯤 올랐을 때 ‘연리근’을 발견했다. 이리저리 살펴도 보고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었다. 연리지는 자주 보았지만, 연리근은 처음이다. 뿌리가 붙어 있어 신기해 보이기도 했다.

비익조와 연리지라는 단어는 중국 당나라 시절의 국민 시인 백거이가 지은 당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노래한 ‘장한가’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이 ‘장한가’는 화청지 경내의 큰 바위에 전문이 음각되어 있다.

부산 남구는 매년 말일에 해넘이 행사와 원단에 해맞이 행사를 오륙도 스카이 워크 광장에서 주민들을 초청하여 실시하고 있다. 부산 남구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가볼 만한 곳으로는 유엔기념공원, 평화공원, 부산문화회관, 대연수목원, 이기대, 부산박물관, 오륙도, 신선대, 동명불원, 황령산 봉수대 등이 있다.

특히 유엔기념공원은 세계에서 하나 밖에 없는 국제연합군의 묘지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21개국 유엔군 전사자 약 11,000여명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었으나 몇 년 간에 걸쳐 제 나라로 이장되어 가고 현재는 2,300 용사의 유해가 잠들어 있다.

그리고 평화공원은 유엔기념공원 주변 일대를 정비하여 조성하였다. 이 공원에서 매년 가을이면 남구청에서 주관하는 국화 축제와 연계하여 우리 남구문인협회 회원의 시화전도 열리고 있다. 평화공원은 남구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십여 곳은 의미 있는 곳으로 볼거리가 많이 있어 남구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도 충분할 것이다. 이를 둘러 볼 때는 소풍가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도 좋을 듯싶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소풍가는 것처럼 설렘과 희망을 안고 살면 어떨까.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고, 피어 있는 꽃도 즐겁게 감상하고, 나무의
흔들림도 보고, 흐르는 시냇물도 보고, 춤추는 나비도 보고 온 세상의
자연을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곧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만호 |

- 《문장21》 신인상 수상(수필), 《지필문학》 제70기 신인상(수필) • 부산 남구문인협회, 부산 수필
문인협회, 부산문인협회 회원 • 부산광역시 근무 • 녹조근정훈장 (사)한자교육연구회 여명서당
원장(현) • 한자한문 공인 전문지도사 및 훈장자격 취득, 한자급수 공인 사범자격 취득
- 저서 『주고 싶은 마음』 『한자의 첫걸음』 『한시감상』 『이야기 고사성어』

재한 유엔기념공원에서

이명섭

황령산에 올라 바다가 있는 남쪽을 바라보면, 높고 낮은 건물들 사이로
넓게 펼쳐진 ‘재한 유엔기념공원’이 시야에 들어온다.

2001년까지 유엔묘지라고 불리던 곳이다. 이곳에는 한국군 36명을
포함 2,300명의 외국 군인들이 영면하고 있다. 대부분이 19세에서 22세의
젊은 피가 끓는 청년들이다.

평화를 사수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장병들. 참전자 중에는
자원입대자도, 의무 입대자도 있었을 것이다. 낯선 나라에 참전하는 일도
흔치 않은 일인데, 전투 명령에 따라 싸우다 이곳에 묻힐 거라고는 꿈엔들
생각하였을까. 번번이 옷깃을 여미게 한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추모객들을 마주치게 된다. 이역 땅에
잠든 남편 혹은 아들이나 형제를 찾아 먼 바다를 건너온 분들이다.
유엔기념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첫인상은, 세계 각국의
군인들이 어찌다 아시아 한쪽 끝에 있는 이름조차 생소한 ‘코리아’라는
작은 나라에까지 와서 묻히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라고 한다.

도로에 접한 곳에는 폭 0.7m, 길이는 110m의 ‘도르트 수로’가 있다.
거기에는 늘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금붕어가 유유히 헤엄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전사한 군인 중 나이가 가장 어린 호주의 병사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한다. 형을 대신해 참전한 그는 1951년에 전사 당시
17세의 꽃다운 나이였다.

이 기념공원에는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1952년 겨울, 6·25전쟁에 참전한 각국 유엔 사절들의 참배 계획이 있었다. 그 당시는 묘지 조성 작업이 한창이라 흙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시간적 여유라곤 불과 일주일밖에 없었다.

미8군 사령부는 긴급하게 정 회장에게 공사를 맡아 줄 것을 제의했다. “잔디가 아니라도 파란 풀이면 된다.”라는 미군의 요청에 따라 정 회장은 보리밭의 보리를 사들여서 깔았는데 그들로부터 “원더풀” 환호를 받았다고 한다.

‘38선’이란 단어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인 1960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노래 부를 사람은 나와서 노래를 부르라고 했다. 까까머리에 다부지게 생긴 급우가 힘차게 손을 들더니 교단으로 나갔다. 군인인 삼촌이 가르쳐줬다며 “눈 녹인 산골짜에 꽃이 피누나”로 시작하는 ‘삼팔선의 봄’을 멋들어지게 불렀다.

그 후 선생님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을 한반도 지도를 그려놓고 상세하게 설명해주셨다.

60년대 중반, 우리 국군으로서는 최초의 해외 파병인 베트남전 파병이 있었다. 70년대 초 고등학교 1학년 때, 파월 장병 환송식에 동원된 적이 있다. 역사는 수레바퀴라고 했던가. 외국군 전사자들이 묻혀있는 이곳 부산항에서 수륙만리 타국의 전장으로 떠나는 국군들. 만국기가 펄럭이는 부두에는 환송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자유 통일 위하여 조국을 지키시다..... 맹호부대 용사들아.” 여고 합창단의 ‘맹호들은 간다.’ 군가가 스피커가 찢어질 듯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난생 처음 보는 군함과 배 위를 가득 메운 파월 장병. 바람에 흔들리는 수만 송이의 꽃을 보는 듯했다. 오색 종이테이프 사이로 여기저기 줄을 늘어뜨려 편지나 물품을 달아 올리는가 하면, 가설무대에서는 군악대의 요란한 반주에 맞춰 부산방송국 여성 전속 합창단이 부르는 ‘잘 있거라

부산항’ 노랫가락이 울려 퍼졌다.

우렁찬 뱃고동이 길게 컷전을 울리고 군함이 뱃머리를 돌릴 즈음. 갑판에서는 모자를 벗어 휘두르는 군인,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군인, 목청이 터지게 누군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군인, 그 눈물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

참전은 곧 죽음이라는 공포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6·25전쟁에 참전했던 외국 군인들이 느꼈을 낯선 나라의 전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었으리라.

수년 전, 서울 시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6·25전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선 시대의 전쟁으로 아는 학생이 38%였다고 한다. 대학생마저 3분의 1가량이 6·25전쟁 발발 연도를 모른다고 하니 근대 역사 교육을 소홀히 한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했다.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 묘지가 있는 남구. 이보다 더 생생한 6·25전쟁의 현장이 어디 있을까.

포성이 멈춘 지 어언 반세기를 넘어 70여 년이 가까워 온다. 전쟁의 참상을 경험한 세대 상당수는 유명을 달리했거나 고령이 되었다. 전쟁의 상흔은 대상과 크기를 달리한 채 아직도 우리의 가슴 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민족 분단의 역사 또한 진행형이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38선이 휴전선으로 이름만 달리했을 뿐. 휴전될 무렵 태어난 나는 이산 2세대이기도 하다.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휴전선이라 부르는 최전방 철책 너머 북녘 땅을 처음 보았을 때, 실향과 이산의 고통 속에 사시는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저릿해 오던 묘한 감정을 잊지 못한다.

지금도 북한은 인류의 파멸을 담보로 하는 핵무기 개발,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쟁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전쟁의 그림자를 지우고,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너나없이 튼튼한 안보 의식으로 정신 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다 산화한 전몰장병과 호국영령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 참전국 국민에 대한 보답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유 수호의 의지를 확고히 할 것을 다짐하며 묵념을 올린다.

Ⅰ 이명섭 Ⅰ

• 계간 《에세이문예》 등단(2004) • 등대문학상 수필, 근로자문학제 수필당선 • 부산 남구문인협회회원

11월의 단상

조을홍

뿌연 물안개가 산을 안고 낮게 흐른다. 숲길이 축축하다.

쫓옥, 쫓옥 굴뚝새 한 마리가 산을 깨우자, 눈을 뜬 나무들이 기지개를 켜다. 물기를 머금은 붉나무의 잎이 더 짙어졌다. 늦가을인 이즈음 장자산 숲은 아침저녁으로 변한다. 섬쥐똥나무 껍질은 단단해졌고, 자귀나무 잎도 갈색 물을 머금었다.

이곳저곳 눈길을 주며 느릿하게 걷는 지금. 하루 중 가장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이다. 무언가 짓누르는 듯 가슴이 답답하거나 깊은 생각이 필요할 때, 혹은 마음이 신산할 때면 곧잘 장자산을 오른다.

집과 가까운 곳에 이처럼 고운 산이 있다는 것이 내게 큰 행운이라고 감사해하며 걷는다.

산 들머리에서 약간 가파른 봄보리수나무 군락의 좁은 길을 따라 오른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저만치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바람결을 따라 흐르는 안개 사이로 노란 감국이 무리지어 피어 있다.

자잘한 꽃들이 세수를 한 듯 젖어 있다. 얼마 전까지 무덤이었던 곳이다. 그런데 이장을 하였는지 봉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산을 오를 때마다 그 봉분을 보면 늘 외로운 섬을 느꼈었다. 손때 묻은 추억들,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모든 것과 이별하고 망망대해에 서 있는 섬처럼 혼자 누워있던 봉분. 그 섬을 보며 결국 삶은 저렇게 혼자가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 지곤 했었다. 그리고 나를 짓누르는 고단한 삶이 그저 별 것 아니라며 위로를 받곤 했었다.

“별써 낙엽이 많이 졌네. 아까운 것. 우리 부지런히 날마다 읊시다. 단풍 다 지기 전에...” 몇 걸음 앞에서 노부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느릿하게 걷고 있다. 문득, 단풍이 다 지기 전에 라는 말이 머리를 울린다. 조금 전 봉분을 생각했던 탓인지 낙엽 진 길을 걷는 노부부에게서 삶의 종착역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착역을 향하는 부부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있다. 서둘지 않는 걸음과 옷깃을 여며주고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작은 모습 하나하나가 안개에 휩싸인 산처럼 편안해 보인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떨어진 낙엽들이 바스락 소리를 내며 아는 척을 한다. 특히 오래 전에 떨어진 낙엽은 밝히고 밝힌 탓에 잘게 부서져 부드러운 융단 위를 걷는 느낌이다. 나뭇잎의 상처가, 그 상처를 딛는 우리에게 온 따듯함과 푸근함으로 안겨 온다. 지난 세월에 대한 아쉬움도 또 욕심도 훌훌 털어버리라는 일깨움인 듯하다.

아마도 세월이 지나면 아픔은 아픔이 아니라 지혜가 되는가보다. 나만을 고집하던 이기심에서 벗어나 밝히는 낙엽처럼 모두와 공유하는 마음이 생기니 말이다.

한 해를 보낼 준비를 해야 하는 11월도 다 지나는데, 빈손이라는 아쉬움으로 가슴이 시렸던 요즘이다. 그런데 역시 산에 오길 잘했다. 생각지도 않았던 나무에게서 비우는 것을 배우고 들꽃에게서 무심을 알아챘으니 말이다.

여명이 걷힌 수평선 위로 찬란한 빛을 뿜내며 해가 솟아오른다. 아메리카 원주민 아라파호족은 11월을 ‘모두가 사라진 것은 아닌 달’이라 부른다고 한다.

눈앞에선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또 마음속에 갈무리하며 훗날을

기약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어제가 가고 오늘이 왔듯이 내일 또한 변함없이 다가온다. 그러면 지칠 줄 모르는 태양처럼 우리의 삶도 이어지겠지. 비우고 채우는 연습을 반복하면서.

! 조을홍 !

- 《수필과비평》등단(2002) • 부산문인협회, 부경수필문학회, 남구문인협회 회원
- 수상 제11회 오륙도문학상 본상(2017) • 수필집 『어머니의 탕고』

남쪽, 그 영원한 노스텔지어

조 혁 훈

남쪽은 어미의 품 같은 곳.

식물은 따뜻한 남쪽에서부터 먼저 싹을 틔우고 더 빨리 성장하여 간다.

숨을 멈추고 있는 한겨울에도 양지쪽 담장 밑에서 파릇하게 호홉하는 풀들. 그 생명의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가. 인류의 씨앗도 사바나 숲에서 발원하였으니 따뜻한 곳은 생태계의 원초적 고향이 된다.

탈북이 쉽지 않았던 1987년, '김만철' 일가족이 대한민국으로 왔다. 첫 일성은 '따뜻한 남쪽나라'로 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한다. 정착 또한 남한에서도 남쪽 끝인 남해에 보금자리를 꾸렸다. 어쩌다 땅이 갈리었으나 남쪽의 체제가 사람 사는 세상이니 '남쪽'이라는 상징성을 살려주어 그나마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지금 우리는 보다 나은 조건을 찾아 정착하다 보니 나라 전체가 도시화가 되고 고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 노인들뿐이다. 고향을 떠난 자들이 어쩔 수 없는 여건 속에서나마 어디에서 어떻게 고향처럼 살아볼까 하며 고민을 해 본적이 있을까. 나 또한 태어난 곳은 부산이 아니다. 고향에서 먼 곳에 직장을 따라 정착하게 되었다. 직장으로 인해 살게 된 도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다만 도시 속 지역과 장소는 내가 원하는 곳을 고를 수도 있으나 주택을 투기 개념으로 여겨 철새처럼 옮겨

다니기도 한다. 현재 사는 곳이 제 2의 고향인데 그것마저 무색해져 가는 삶의 방식이 안타깝다.

나는 커서도 항상 어미 품이 그리웠고 그럴 땐 사는 곳이라도 남쪽을 동경하곤 한다. 투자. 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곳을 택하여 '남구 용호동'에서 살고 있다. "천 칸이나 되는 큰 집이라도 잠을 자는 자리는 여덟 자뿐이고, 좋은 밭이 만 이랑이나 되어도 하루에 먹는 것은 곡식 두 되뿐이다."라는 옛 글이 떠오른다. 하늘아래 어디로 간들 숨 쉬지 않고 사는 곳이 어디 있으랴. 영혼이 함께 살아 숨쉬기 위해선 내 고향 같이 아늑함을 주는 곳을 스스로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어느 한 곳에 깊은 정을 주지 못하는 철새의 여정생활이 싫어 난 항상 텃새를 꿈꿔 왔으며 이제 그 보금자리 속에서 아늑함으로 발을 쭉 뻗어 보기도 한다.

우리 남구에는 경성대, 부경대, 동명대와 같은 상아탑인 학문의 전당이 있고 부산박물관, 부산문화회관처럼 문화, 예술의 전당도 있다. 물 위 산수화인 오륙도는 부산항 관문이다. 용호동 해안 일대 암반인 '이기대' 풍류에 관한 기록하며 신선이 내려왔음직한 '신선대'가 있어 남쪽 풍광에 한 뭉을 더한다.

산이 있고 바다가 있어, 숲의 고요함을 깨고 새소리로 현을 튕길 때, 파도가 바위를 만나 희게 부서지는 바다에선 주황 금빛 아침 해가 솟고 갈매기가 은빛 날갯짓으로 허공을 가르다. 소리, 색, 역동의 하모니. 현자가 찾는 산과 지자가 갈망하는 바다. 푸른 산, 푸른 바다라 하나 색의 농도는 확연히 구분되어 조물주가 풀어 놓은 대자연의 수채화다.

바다를 색다르게 느끼고 싶을 때는 산으로 오른다.

‘장자산’에 오르면 발밑에서 푸른 물결이 출렁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숲으로 들어서자 문인들의 시화가 걸려있다. 비단위에 꽃을 더함. 상큼한 공기도 감사커늘, 책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신선한 느낌의 글들이 숲의 바람과 함께 밀려오니 공기처럼 마셔본다. 가슴엔 희열의 물결, 발아래 바다의 물결. 삶 속 양념같은 이런 곳도 있어야 살맛도 나지 않을까?

백운포체육공원에는 축구, 야구, 족구, 테니스, 수영시설이 있어 주민들의 여가와 건강을 챙겨주고 내가 즐기는 스포츠인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있어 풀방구리에 쥐 드나들 듯 하고 있다. 고향 맛이 그리울 땐 동네 전통시장으로 간다. 노점상 할머니들을 보면 내 집안 어른 같고 맛깔스럽게 옛 맛을 내는 반찬거리를 살 때는 어머니 손길 같아 울컥해온다. 팍팍한 삶만 살아오면서 파는 쪽을 향하여 언제 이렇듯 애정을 표시해 본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나의 동선은 거의 남구 용호동에 맞추어져 있다.

가슴 속 깊은 곳에 한결같이 품고 있는 고향. 꿈에도 나타나서 한 번씩 베갯잇을 적시게 하는 그곳. 그러나 지금에 와서 고향에 가서 살 수 있을까? 모든 문명이 도시에 몰려 있으니 대개는 도시가 제 2 고향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어야 비로소 내 삶도 완성되는 것이니.

말과 글이 그리울 때면 남구 문인 분들과 교류를 하며, 내 집에 들어서면 내 호號를 표현한 그림 한 점, 달항아리백자가 정좌靜坐해 기품 있게 반겨주는데 흡사, 백자는 불상佛像이요 그림은 성화聖畵같다.

그 동안 떠돌았던 세월의 조각과 그로 인한 회한.

나는 더 이상 허상을 좇아 이니스프리로 가지 않겠다.

이제 ‘남구’는 나의 고향이자 말벗이고 글벗이다.

우리들 마음 속 영원한 노스텔지어, 남쪽.

그 하늘 밑에서 고향에서 사는 듯 그렇게 살아가련다.

! 조혁훈 !

- 《문장 21》수필 등단 • 관세청 퇴직 • 부산문인협회 회원, 남구문인협회 부회장, 《새글터》동인회장
- 수상 고운 최치원문학상(본상) • 수필집 『색, 자연을 아우른다』

상애원의 추억

최 방 식

용호동으로 가는 산복도로는 벚나무 가로수가 붉게 물들어 가고, 주변의 산도 군데군데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다.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찾은 날은 입동을 이틀 앞둔 깊어 가는 가을이었다.

오후의 청명한 날씨는 가시거리가 좋아 멀리 푸른 바다 위에 그림처럼 보이는 해운대의 고층 건물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다. 시원하게 펼쳐진 현해탄의 넓고 푸른 바다는 호수같이 잔잔하고 항해하는 배들은 목적지를 향하여 오늘도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오륙도가 반히 보이는 언덕은 바람의 언덕이었는데, 오늘은 바람이 없고 눈부신 가을볕이 따갑다. 여기서 바라보는 수평선은 일망무제—望無際다.

깎아지른 절벽의 기암괴석과 파도소리가 그려내는 대자연의 풍광이 경이롭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니 구름 한 점 없고 티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다. 해파랑 길의 출발점인 이 곳의 산허리 길에 꽃동산이 꾸며져 있고 그 뒤에 우뚝 솟은 오륙도 SK view 아파트 건물이 웅장한 모양을 하고 있다.

집에서 차로 벌끼고개를 지나서 이곳까지 오 분 거리인데 이 멋진 곳을 옆에 두고 자주 찾아오지 못했다. 일 년에 한두 번씩 왔지만,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주말이나 연휴 때 주로 찾다보니 북적거리는 관광객과 인파들 때문에 기피하게 되었던 것 같다.

평일 오후, 한가하고 날씨 좋은 가을날 오륙도를 찾은 것은 행운이었다.

불과 10여 년 전 이곳은 용호농장으로 한센병 환자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산속의 맑은 공기와 넓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도심 속의 오지로 축산과 양계, 밭농사를 짓고 살던 곳이다. 30년 전에는 부산에서 유통된 계란의 1/4 가량이 여기서 공급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고층 아파트와 부산의 관광 명소로 탄생했으니 빠른 변화에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곳에 오면 지난날 용호농장의 상애원이 있었던 보건소에 근무했던 친구 영애 생각이 난다. 어제 저녁 잊혀 가는 용호농장의 한센병 환자들이 언제부터 용호동에 살기 시작했는지 자료를 찾아보았다.

용호농장으로 명명되기 전에는 이곳을 상애원으로 불렀다. 상애원 相愛園은 한센인 수용소 보호 병원으로 감만동에서 1910년 개원하였다. 처음에는 미국 북 장로교 어빈 선교사에 의하여 감만동에 자리를 잡았다. 그 후 부산지역이 호주 장로회 선교구역으로 정해져 호주 장로회 선교부로 이관되면서 호주 선교부가 운영하던 의료 및 구호시설이었다.

1912년 5월 제임스 노블 맥켄지(1865-1956: 한국명 매견시)원장이 취임하면서 상애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활성화되었다. 맥켄지 목사는 의사로서, 당시 가족과 격리되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절망 속에 살아가는 한센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희망을 주었고 섬김의 정성은 지극하였다.

1930년대 전국의 한센병 환자는 2만 명 정도였는데 처음 20여 명으로 시작된 보호 수용소는 1911년 40여 명의 환자를 돌보며 상애원으로 정비된 후 1914년 80여 명, 1938년 650여 명까지 늘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진 손양원 전도사는 이곳에서 맥켄지를 만났고, 헌신적인 그의 섬김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도 여수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목사가 되었다.

해방 후 상애원은 이성곤 장로가 1946년 3월 270여 명의 환자를 이끌고 용호동 장자산 포진지의 일본군 막사를 헐고 주거지를 만들고 감만동 주거지를 철거해 이곳에 재건축하여 한센인 치료와 선교를 하며 정착하게 되었다. 맥켄지 목사는 1939년 6월 30일까지 29년간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은퇴를 했다. 귀국하여 1956년 7월 1일 91세로 별세하였다.

한국에서 태어난 두 딸 매혜란, 매혜영은 호주에서 의사, 간호사가 되어 1952년 6·25때 부산에서 진료를 하였으며 일신병원을 설립하였다.

용호농장의 보건소에서 영애를 만난 것은 42년 전 3월 12일 오전 11시쯤이다. 나의 결혼식이 14일이라 결혼 이틀 전에 용호 농장에 갔었다. 그 당시 결혼식에는 돼지를 잡아 하객들에게 대접 하는 것이 관례였다. 돼지를 구하기 위해 친척 형님들과 함께 용호 농장을 방문하였다. 용호농장은 나환자촌이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잘 가지 않는 곳이다. 어릴 때 보리밭의 문둥이 이야기로 무서움에 떨었던 기억도 있다. 이들과 가까이에서 만나 보기는 처음이어서 약간의 두려움과 호기심도 있었다. 용호농장에 도착하여 농장 사무실 앞마당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과연 그들은 코도 눈도 듣던 대로였다. 우리를 힐끔 쳐다보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형님들이 사무실에서 흥정을 하는 동안 옆 건물에 보건소가 있어 무심코 들어다보니 나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뜻밖에도 영애였다. 나에게로 걸어오는 영애를 보며 나도 놀랐지만 영애는 더욱 놀라는 표정이었다.

“어떻게 여기에 왔느냐”고 묻기에 “내일 모래 결혼을 하는데 돼지 한 마리를 구입하러 왔다고 하자” 웃으며 반갑게 “축하한다.”고 말했다.

“결혼 상대는 누구데?” 웃으며 묻기에 “희야 알재? 희야와 결혼한다.”고 하니까 약간 놀라는 표정이었다. 숙이랑 친하게 지내던 생각을 떠올리고 결혼까지 하는 줄 알았던 모양이었다.

영애와 희야, 숙이는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함께하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절기 행사나 여러 행사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다. 그러나 영애는 보육원에서 생활을 하였기에 우리들처럼 자유롭게 어울려 다니거나 평일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만 언제나 시간과 행동에 제약을 받았다. 영애가 간호대학에 입학하여 대학생이 되자 교회에서 그의 얼굴은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잊혀 가고 있던 영애를 뜻밖에 여기서 만났으니 서로가 반가웠다. 근처 벤치에 앉아 서로의 근황을 물어 보면서 숙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고등부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물음이었다. 나는 숙이를 좋아했고 친하게 지내면서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숙이 가족은 마산으로 이사를 갔다. 이사를 간 후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만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갈수록 서로가 마음은 멀어져 갔다. 주고받는 편지도 뜸해진지 오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는 편지를 받았다.

“현재 숙이와 연락은 되지 않고 결혼한 지 사 년 정도 되었다”고 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동안 많이 예뻐졌다.”고 말하자,

“그래,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듣기 좋은 말은 여전히 잘하네.”웃으며 넘기면서 다른 친구들의 소식을 물어 보았다. 몇 년 만에 처음 만나는 영애는 몰라볼 정도로 어여쁜 숙녀가 되어 있었다. 여고에 다닐 때도 키가 크고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와 짙은 눈썹에 예쁜 얼굴이었다.

한센병 환자들을 상대로 이곳에서 간호사로 일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크리스천으로 사명감 때문인가 생각하다가 영애가 보육원에서 생활했다는 것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당시 보육원 아이들은 음성 나환자의 자녀로 미감아들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형님들이 일을 마치고 나를 부르는 소리에 영애는 내게 부탁이 있다며, “내가 여기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든 비밀로 해 줘” 간절한 부탁에 약속을 하고 왔다.

가끔, 영애는 왜 자신의 거처를 비밀로 해 달라고 부탁했는지, 무슨 말 못할 사연으로 숨어 지내는지 궁금했었다.

그로부터 삼 년이 지난 어느 날, 영애가 어릴 때부터 자라고 생활했던 보육원의 원장님인 박 장로님을 만났다. 여기서 지난날 영애를 만났던 이야기를 했다. 장로님은 조금 생각 하시더니 영애의 이야기를 하였다. 영애가 종합병원에 근무할 때 환자 중의 한 남자가 영애를 좋아하여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무르익어 결혼을 하려고 하자 남자의 부모님들이 완강히 반대를 하였다. 남자는 좋은 집안에 부유한 가정의 아들이었다. 영애는 미감아로 보육원에서 자란 불우한 환경과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차마 하지 못했단다. 자신의 삶과 주변 환경을 생각하니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했고, 헤어지자며 절교를 선언했지만 남자는 그녀를 놓칠 수 없다며 끈질기게 구애를 하자 영애는 종적을 감추어 버렸단다.

남자는 영애를 애타게 찾았고 여기저기 수소문하였지만 찾지 못했다. 그 후 영애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용호농장 한센인 환자들이 살고 있는 상애원의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있었다.

자신의 거처를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속으로 들어와 외진 이곳에 스스로를 격리시키며 머무르는 그의 마음은 얼마나 힘겨웠을까? 때론 삶이 거추장스러울 때도 있었을 것이다. 우연히 영애를 만났던 그날 그녀의 놀라던 표정을 지을 수 없었다. 내가 결혼을 한다고 하였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른다. 나에게 결혼을 축하한다고 하였을 때,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잊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얼마나 애달파 했을까? 친구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듣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그러다 이듬해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어느 날, 박 장로님이 영애가 그 사람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고 알려 주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아픈 사랑의 나날을 보내었을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삶 자체까지 흔들린 적이 있었을 것이다. 잊기로 모진 마음을 먹었지만 순간순간 밀려오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 시라도 잊어 본 적도 없었을 것이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잠적한 날들이 어찌면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가장 소중한 날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여 서로 연락이 닿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서로 사랑하고 미워했던 것, 기쁘고 슬펐던 것 모두가 삶의 조각들이고 이 조각의 퍼즐을 맞추어 가는 것이 삶이라고 했다.

이제는 아무에게도 방해 받지 않은 그곳에서 사랑에 목말라하고 그리워했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며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버팀목이 되어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

Ⅰ 최방식 Ⅰ

- 부산 용당 출생 • 《문학도시》 등단(2018), 《부산크리스천문학》 등단(2017)
- 부산문인협회, 부산수필문인협회, 남구문인협회,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남구문학의 담론

발행일 | 2020년 11월 30일

발행처 | 부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회장 성재영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 부산문화재단 1층
T. 051-554-0159 F. 051-624-1348

기획처 | 부산남구문화원 원장 김철
(48516)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566-2
T. 051-624-1333

제작총괄 | 도서출판 두손컴 (등록번호 : 제329-1997-1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35 삼성빌딩 301호
T. 051-805-8002 F. 051-805-8045

©부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비매품

ISBN 979-11-88678-????-?? 03810

이 책은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품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